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중상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최 영 수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I. 序 論

本 研究의 目的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劃期的인 事件”¹⁾이라 評價했던 地理上的 發見의 先驅者 포르투갈(Portugal)과 스페인(Spain)이 植民帝國을 設立하게 된 動因을 밝히고, 舊帝國主義의 基本정책이었던 重商主義(Mercantilism)의 實際와 그 結果를 새롭게 조명하여, 유럽 經濟變化와의 相關關係를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舊帝國主義의 政策理論을 一般化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帝國主義(Imperialism), 重商主義 그리고 絶對主義(Absolutism)의 概念把握과 상호간의 聯關性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理由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植民帝國이 그 性格上 분명히 帝國主義의 範疇에 속하고, 重商主義政策은 絶對王政을 주체로 하여 수행된 경제정책이며, 絶對왕정은 國富의 증진을 위한 植民帝國의 건설을 강력한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舊帝國主義는 15, 16C를 기점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海洋國家들이 發見의 時代(Época do Descobrimento)²⁾를 통해 팽창 정책을 추구하며 19C 중반까지 유지했던 유럽의 식민시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舊帝國主義의 政策理論은 新帝國主義理論의 다양한 분석 방법에 비해 볼 때 그 연구가 지극히 미진하며 구체국주의의 復活이 신제국주의라는 전제하에서 후자의 理論分析에 있어 背景的 役割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舊帝國主義는 연구의 성격에 있

1) J.H. Elliot, *The Old World and the New 1492~16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10. *The Wealth of Nations*, 1776, ed. Edwin Cannan, reimpressão university paperback, London, 1961, 11, p.141.

2) David Arnold, *A Época dos Descobrimentos 1400~1600* (Lisboa: Gradiva, 1983), p.7.

어서도 偏向의 傾向을 탈피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國粹主義的이었으며, 연구의 범위도 단일 제국의 個體的 내지는 특수 정책 사례의 연구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政策의 全體的인 概念把握이 어려웠다.

한편, 舊帝國主義의 기본정책인 重商主義는 돈튼(A.P. Thornton)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단순한 貿易策略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경제 정책의 특수한 형태로 서 인정됐을 뿐, 經濟學의 理論으로나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필자는 이같은 일반적 평가를 비어(Beer), 슈일러(Schuyler), 린슨(Lisson) 등의 史家들이 指稱한 이른바 重商主義時代의 舊植民體制(Antigo Sistema Colonial da era mercantilista)³⁾의 政策을 단순히 이윤 추구의 목적을 위한 무역 책략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政策이 복합적인 제반 원인들로부터 추구된 것이었으며, 그 結果 또한 消滅과 破綻이 아닌, 이후의 유럽 세계의 발전적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本 論文은 그 연구 범위를 16C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植民帝國政策에 중점을 두고, 政策의 結果를 평가할 수 있도록 17C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이처럼 주된 범위를 16C로 설정한 것은 兩植民帝國이 가장 활발하게 제국 정책을 추구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포르투갈이 동 마누엘(D. Manuel) 王의 통치기(1495~1521)에 인디아 航路를 개척한 후 東洋에 인디아國(Estado da India)⁴⁾을 設立하고 아프리카 동해안으로부터 西로는 몰루카스(Molucas)群島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先支配, 後 交易의 帝國政策을 통해 아시아의 香料交易를 獨占하고 동양의 先驅의 開拓者로 번영을 구가했으며 그 이후 스페인의 합스부르크(Habsburg) 王家의 필리페 2세에 의해 合併되면서 급격한 쇠퇴에 이르렀던 때를 포함하며, 스페인 역시 카톨릭왕들(Los Reyes Católicos)⁵⁾의 시대에 콜론(Colón)이 안티아스(Antillas)諸島를 발견한 후, 新大陸의 대부분을 征服하고 1519~1523년에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가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를 정복하고⁶⁾, 1535년과 1542년에 멕시코와 페루에 副王領(Virreinato)을 設立하고, 金과 銀의 獨占交易政策으로 空前의

3) Fernando A. Novais, *Estrutura e Dinâmica do Antigo Sistema Colonial* (São Paulo: Editora Brasiliense, 1986), p.13.

4) 1506년에 포르투갈의 동 마누엘王이 동양에서 식민정책을 조직화하기 위해 설립한 植民帝國의 명칭.

5) 1469년 바야돌리드에서 결혼한 카스티야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 王國 페르난도에게 교황 알렉산더 5세가 1494년에 제공한 호칭.

6) Guillermo Céspedes del Castillo, *América Hispánica(1492~1898)*, (Barcelona: Editorial Labor, S.A., 1985), p.501.

繁榮을 누렸고, 펠리페 2세의 無敵艦隊(La Armada Invencible)가 英國의 엘리자베스(Elizabeth) 女王에게 참패하면서 급격히 쇠퇴했던 帝國斜陽化의 시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兩植民帝國의 設立初期부터 쇠퇴기까지를 비교적 시대적인 차이없이 분석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내용면에서 본 논문은 帝國의 設立과 政策의 樹立, 양국의 중상주의적 交易獨占政策 그리고 政策의 결과와 評價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양 帝國의 정책을 經濟政策에 국한시킨 것은 舊帝國의 植民政策 자체가 絕對王政을 주체로 수행된 重商主義政策이며, 그 本質에 있어서도 근세 자본주의의 초기에 商業資本을 바탕으로 植民帝國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帝國主義와 植民地 建設 그리고 海外膨脹政策의 역사에 대한 接近方法은 初期의 自己正當化의이고 觀念的인 帝國의 찬양을 위한 民族主義的 역사 서술이나 道德的 接近方法에서 벗어나 帝國主義에 대한 分析的이고 批判的인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帝國主義를 하나의 社會的 現象으로 分析하고 原因, 經過, 制度 그리고 그 속에 있는 人間들의 냉정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하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植民政策을 체계적으로 分析하여 舊帝國主義의 構造的 特質을 일반화하며, 양국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重商主義的 帝國政策의 相關關係를 비교사적 방법(The Comparative Approach to History)으로 설명하려 한다.

필자가 연구 방법으로 비교사적 방법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舊帝國主義의 政策理論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일반화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화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비교를 통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둘째로, 比較史的 方法은 어떻게 일어났나보다는 왜 일어났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 사례에 공통되어 있는 因果的 規則性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바, 본 연구의 의도가 初期重商主義政策의 본질인 植民帝國設立의 動機, 정책추구의 원인 그리고 결과의 연구에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지극히 합당하다.

세째로, 비교사적 방법은 지금까지 인정되어온 역사적 설명들의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대략적 검정 수단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됐던 양국의 제국정책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사례가 불충분한 歷史的 現象을 설명하기에 적당하기 때

7) Norman F. Cantor, *Perspectives on the European Past Conversations with Historians* (지동식 외 공역), 『서양사신훈 Ⅱ』 (서울:법문사, 1984), p.208.

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특이한 정책 사례의 비교에 알맞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比較史的 方法을 적용한 연구서는 데이빗 아놀드(David Arnold)의 『發見의 時代 *A Época dos Descobrimentos*』, 뵘에르 샤우누(Pierre Chaunu)의 『유럽의 팽창 *L'expansion Européenne*』, 프레데릭 마우로(Frederic Mauro)의 『유럽의 팽창(1600~1870) *L'Expansion Européenne*』 그리고 실비오 자발라(Silvio Zavala)의 『스페인, 화란, 영국 그리고 불란서(Spain, Holland, England and France)의 식민지사』에 포함된 측면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비교사적 視覺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외에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필자가 시도하는 비교사적 방법의 적용이 그 타당성을 인정 받는다면 이것은 이제까지 미진했던 重商主義時代의 舊植民體制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이론과 실제 역사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여를 하게 되리라 믿는다.

Ⅱ. 海外膨脹政策의 背景

1. 유럽膨脹主義의 一般的 背景

暗黒時代(Dark Age)의 혼란과 무질서가 휩쓸고 지나간 11C 말엽부터 유럽 세계는 서서히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 넓은 외부 세계로의 진출을 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膨脹의 움직임이 있기 전에 유럽인들에게 세계는 단지 실제 크기의 1/4 정도가 알려져 있었고, 또한 그 영역에서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최대의 지식 보유지는 이슬람과 중국의 문명이었다. 中世 유럽인들의 지구에 관한 지식은 보잘 것 없고 부정확했다. 그런 이유로 전통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려는 유럽인들의 노력은 각기 다른 문화권 간의 物質的, 精神的 交流과 함께 교통 체제의 설립 뿐만 아니라 생활과 지적 수준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따라서 中世에서 近代로의 移行期에 유럽인들의 이질 문화권에 대한 지식은 革新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1400년 경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그들의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처럼 유럽을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관념과 인식을 지녔었다. 데이빗 아놀드(David Arnold)는 “200여년 간 유럽의 지도 작성가들에 의해 그려진 지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윤곽과는 달리 부정확한 일록점으로부터, 마치 성장중인 胎兒처럼, 발전되어 왔다”⁸⁾면서 당시의 낙후된 지식 수준을 강조한다.

8) David Arnold, *A Época dos Descobrimentos* (Lisboa: Gradiva, 1983), p.11.

1400년대 유럽의 가장 믿을 만한 정보의 원천은 당시의 여행기나 古典原本이었다. 2C에 著作되고, 1406년 경 그리스어 원본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 세계에 소개된 프톨로메우(Ptolomeu)의 『지리학』⁹⁾은 로마 帝國 黃金期の 지리 지식을 위한 敎本이었다. 비록 그의 저술은 인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描寫를 하고 있었지만 더 먼 곳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고 그 내용도 빈약했다. 당시에 가장 인기있는 책은 13C 末 아시아를 橫斷하여 몽고 帝國의 皇室까지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1)의 『東方見聞錄』이었다. 그는 아시아가 發展된 文明의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은 대륙이라는 확신을 유럽인들에게 심어주었다.

15C의 유럽인들은 프톨로메우와 마르코 폴로의 著述이 불충분하고 現實性이 결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중세 유럽인들의 觀念에 영향을 미쳤던 여행자들의 꾸며진 이야기, 迷信 그리고 傳說들보다는 신빙성있는 정보로 평가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유럽인들이 존 만데빌卿(Sir John Mandeville)의 동양 여행기에서처럼 개의 머리 모습을 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나 망망대해를 줄기차게 항해해 나가면 배들은 결국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펄펄 끓는 물의 바다가 삼켜버린다는 전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부로 항해해 가면 작열하는 太陽熱에 백인이 흑인으로 변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정도로 단순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유럽의 팽창운동은 갑자기 到來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이 고립된 유럽 사회의 가운데에서 은연중 성숙되어 온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11C 이후부터 15~16C의 발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내부에서 전개된 諸般變化를 통해 규명될 수 있고 또한 확실한 原因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많은 史家들이 견해를 달리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유럽 팽창의 시대를 과학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바다의 모험적 항해가들의 업적으로만 평가하려 든다. 또 어떤 역사가들은 15~16C의 발견을 위한 여행을 11C부터 유럽 내부에서 축적되어온 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적 발전의 결과로서만 평가하려 든다. 이 경우에는 모험가들과 항해가들의 중요성이 부정된다. 항해 왕자 엔리끄, 콜론,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olomeu Dias, ?~1500), 바스코다 가마(Vasco da Gama), 마젤란(Fernão de Magalhães), 코르테스(Cortés), 피사로(Pizarro)와 같은 인물들의 상상력, 과감성 그리고 결단력 등은 유럽 팽창주의를 가속화시켰고 그 방향과 특색을 규정짓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숙된 유럽인들의 기술, 자원 그리고 야심으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콜론이 1492년 大西洋橫斷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코르테스가 1521년 멕

9) O.H.K. Spate, *The Spanish Lake* (London: Croom Helm London, 1979), p.6.

시코를 정복하지 못했더라도, 또한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印度航路開拓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유럽의 다른 항해가들은 성숙된 유럽 근대사회의 제반 조건 속에서 이와 같은 과업을 이룩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 일부 學者들은 팽창하는 이교도 세력의 압력에 따른 東方交易路의 폐쇄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레반트(Levante)로 진출하고, 특히 1453년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하여, 交易路가 차단되고 東方의 産物에 重稅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받은 자극으로 팽창의 욕구를 분출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은 東方貿易의 주요 거점이 아니었고 東方貿易路의 중점인 시리아나 알렉산드리아는 16C에 들어서야 투르크에게 점령당했으며, 15C를 통해서도 동방의 산물은 계속 유럽에 수입되었고 향료 가격의 급등 현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¹⁰⁾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로 콘스탄티노폴이 함락되기 전에 포르투갈인들이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탐험하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또 일부 學者들은 바이킹의 여행, 십자군의 전쟁과 정복, 그리고 제노바와 베네치아인들의 商業活動으로부터 의문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팽창정책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15C 이전에는 유럽 내부에 航海技術, 財原 그리고 政治的, 社會經濟的 與件과 팽창과 개척을 위한 강력한 動機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들 역사가들의 인식을 綜合評價한 바로는, 15~16C의 변화, 즉 膨脹主義時代를 주도하고 先驅의 位置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경쟁의 국면에 대처한 것은 날로 확장되는 경제 규모와 교역의 중요성에 대한 깨우침이 동기를 부여하고, 강력해지고자 하는 절대왕정 체제의 꾸준한 팽창정책 추구와 더불어 이슬람 세력과의 대립, 유럽 열강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투쟁이 유럽의 모험가들과 항해가들을 더욱 공격적이고 신앙적 人間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토록 강력한 경제적 동기와 이를 후원하는 중앙 집권적 절대 권력과 그들의 宗教的 確信이 조화를 이루어 분출구를 찾은 곳은 바다 너머의 미지의 세계였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야곱 부르크하르트(Jakob Burckhardt)의 표현처럼 世界와 人間의 發見을 위한 르네상스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精神的인 면에서도 팽창주의는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2. 葡와 西의 膨脹主義의 背景

14~17C에는 이베리아 半島의 소왕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시작했고 뒤이어 英

10) Shepard B. Clough and Richard T. Rapp, *European Economic History* (Tokyo: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1968), p.123.

國, 和蘭, 그리고 佛蘭西가 참여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면에 들어섰던 유럽 世界의 精神的이고 空間的인 海外膨脹事業이 진행됐다. 이를 우리는 發見의 時代(Época dos Descobrimentos)라 일컫는다.

發見은 무엇보다도 유럽 文明의 植民主義的, 帝國主義的 膨脹의 움직임이었다. 유럽 팽창주의의 근본적인 動因과 본원적 충동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맨처음 일어났는데 그 理由는 이베리아 반도가 당시로서는 가장 적합한 팽창의 要因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외팽창 정책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현상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그것은 유럽 세계의 내부에서 발아된 제반 조건들과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양국이 갖는 조건들 및 팽창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성숙된 動機들, 즉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현상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葡와 西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육로나 해로로 아프리카와 대서양을 유럽과 연결짓는 고리वाद 같은 곳이었다. 또한 양국은 지중해의 기독교적 영향, 유대 그리고 아랍과의 오랜 교류로 해양 과학과 기술이 축적되고 최상의 준비가 갖추어진 곳이기도 했으며 유럽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빈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권을 벗어나려는 팽창의 심리가 가장 큰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베리아 반도의 兩國이 15, 16C에 선두 주자로서 팽창 과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조건들과 動機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비교하여 植民帝國政策 즉 팽창주의 정책이 반도인들에 의해 시행된 原因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1) 葡의 膨脹主義의 背景

자이미 코르티싸옹(Jaime Cortesão)은 葡가 유럽의 諸國家들에 앞서 팽창 정책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비해서 유리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맨먼저 葡의 유리한 地理的 조건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海洋性 특징을 들 수 있는데 그 특징 속에 바로 포르투갈 역사의 보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다양한 지리적 운곽은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곳에서는 “대서양의 收斂”이라 부를 만한 하나의 융합체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남서쪽 끝머리이고 또한 동북부의 무역통과 카나리아 군도의 조류에 의해 형성된 해상 통로의 어귀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유럽 대륙의 南部와 北部를 연결짓는 해양 통로의 역할 외에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항해 및 교역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구를 보유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소레스(Açores)와 까보 베르드(Cabo Verde) 群島를 정복한 뒤 葡는 두 개의 美洲大陸 중의 한 곳에 도달하기 위한 해군 기지가 될 가장 가까운 유

럼의 진진 기지를 대서양 상에 보유하게 된 것이다……”¹¹⁾고 말한다. 이처럼 적합한 지리적 조건들이 수세기에 걸친 葡의 해상 활동의 발전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마르틴스 아폰소(Martins Afonso)를 비롯한 많은 역사가들은 또 하나의 유리한 조건으로 葡人들의 海洋性 天稟을 지적하며 “토지의 빈약함과 척박함 때문에 접근하기 쉬웠던 광활한 해안 지역은 葡人들이 그들의 農業經濟에 대한 자연적인 보충으로서 바다에서 資源을 찾게 만들었다. 이미 네오리머구(Eneolítico) 時代에 많은 海洋民族이 우리의 땅에 거주했고 그 이후에는 다른 植民들인 페니키아人(Fenicios), 그리스人(Gregos) 그리고 카르타고人(Cartagineses)들이 그들의 先祖때부터 내려오는 航海家의 性品을 해안에 거주하는 葡人들과의 혼혈로 남겼다. 葡왕국이 창건되면서 그들은 재빨리 海洋國家로 변모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리스본 征服(1147)이 이루어지자 大西洋海岸의 정복, 어업의 강화 그리고 해상 교역망을 확장하게 되면서부터였다. 1179년 리스본의 영유지 지배권을 수여할 때 初代 王은 곧 각 선박의 사령관과 다섯 선원들에게 기사의 특전을 내렸다. 그리고 동 아폰소 3세(D. Afonso III) 때에는 이미 리스본에 선박 건조를 위한 왕실 창고가 설립되었고 외부와의 교역 발전에 따른 해운업의 성장이 있었다. 동 디니스(D. Dinis) 시대부터 葡의 선박들은 빈번히 지중해와 대서양의 주요 항구들을 왕래했고, 동 아폰소 4세(D. Afonso IV) 때에는 카나리아 群島에 두 차례의 원정대를 보낼 정도로 해상 여행의 진전이 있었다”¹²⁾고 강조한다.

이처럼 葡人들의 해양성 기질은 당대의 賢王으로 칭송되었던 동 디니스가 제노바인 마누엘 페산냐(Manuel Pesanha)와 왕의 선박들의 제독(Almirante des Galés de el-rei)으로 계약을 맺고 해운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선박의 지휘를 위해 20인의 제노바인 항해 기술자들을 고용했던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14C의 葡王室의 적극적인 海運保護政策 속에서 강한 해양성 천품의 葡人들은 타국가들에 비해 훨씬 바다와 人間과의 관계를 친숙하게 가질 수 있었다.

政治, 經濟的 狀況 또한 팽창 정책을 뒷받침한 필수적 요인이었다. 13C 末 葡는 알까니세스(Alcanices) 條約을 통해서 스페인과 확실한 國境線을 갖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王位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까스티야의 공격으로 발생한 1385년의 알주바로타(Aljubarrota) 전투에서는 葡가 숫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고 1411년에는 양국 간에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투쟁은 종식됐다. 그러나 27년간 지속된 왕위

11) Jaime Cortesão, *História dos Descobrimentos Portugueses*, Vol. I (Lisboa: Círculo de Leitores, 1978), p.163.

12) A. Martins Afonso, *História da Civilização Portuguesa*, 5 edição (Porto Editora, 1974), pp.126-127.

제승전쟁이 끝나자 많은 군사적 경험의 소유자인 귀족들은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1411년의 평화조약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東과 北 그 어느 편에서도 포르투갈의 영토 확장의 가능성은 사라졌기 때문이며 또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14C의 경제적 불황의 연장이었고 이로써 귀족들의 소득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3C 初부터 상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행되면서 리스본과 브르뚜市에는 강력한 商人 부르주아지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포르투갈의 제 2 왕조의 성립과 함께 동 조앙 1세를 적극 지원했던 사회계층이었기에 국왕의 비호 아래 세력이 크게 부상했으며 해상 교역의 발전을 위한 공헌도와 1383~1385년의 市民革命에서 수행했던 역할로 經濟的・政治的 比重이 점차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포르투갈인들의 기술적 준비도 이미 무어人 支配時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葡의 海洋科學은 중세 동안 지중해의 항해 기술과 반도 내의 天文學者들의 天地學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다. 이것은 중세의 항해의 중심지였던 까탈루냐(Catalunha)의 바르셀로나(Barcelona)와 마이오르카(Maiorca)로부터 저명한 해도 작성가 자이메 드 마이오르카(Jaime de Maiorca)가 항해 왕자의 초빙을 받았고 동 조앙 2세 때 도 아브랑 자꾸또(Abrão Zacuto)가 초빙되었던 점에서 입증된다. 그러나 포르투갈 자체에서도 14C 初에 天文學과 天地學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이 등장했다. 15C 初 지중해의 지리와 천체에 관한 지식이 葡에 보급되었던 것은 당시 이미 지중해와의 해상 교역이 활발했고 이로 인해 제노바, 까탈란 그리고 아라곤 商人들이 포르투갈에 정착했으며 또한 무슬림 세계와의 빈번한 접촉 때문에 가능했다. 제노바의 海洋學校, 海圖作成者 養成學校 그리고 葡의 海洋學校의 교류는 제노바인들의 협조로 실현되어 지중해의 최신 항해도가 소개되고 14C 전반기에 포르투갈에서는 항해도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해도 작성법도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제노바, 아라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얻은 정보로 葡는 15C 初에 基督教國家의 지리 문화와 혼합된 새로운 地理文化를 보유했다. 따라서 葡인들이 대서양의 개척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지중해 세계에서 얻은 지식을 발전시켜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항해술 역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새로운 方位測定의 방법이 발견되고 항해 학교의 理論的 知識과 해양 관찰의 결과가 조화를 이루어 葡人들의 天體測定術은 놀라운 發展을 보였고 이를 토대로 항해술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또한 선박의 위치는 북극성의 고도와 태양의 극점에 기반을 두고 실행된 위도의 측정으로 확인됐으며 북극성의 고도나 태양의 극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象限儀, 天文觀測儀 그리고 발레스멜라(Balestilha)가 이용됐다.

이처럼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개발을 통한 해양 과학의 진보로 인도양 항해시에 는 까라벨라가 나우(Nau)船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공해 상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항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류와 해류의 연구가 필요했고 지도 작성술도 필수적인 요건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항해 왕자 엔리크가 세우파의 정복후 사그레스(Sagres) 항구에 航海實習學校(Verdadeira Escola Prática de Navegação)를 창건하고 리스본대학에는 수학과 천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저명한 까탈란人 자코미 드 마 이오르카(Jácome de Maiorca), 제노바人 안토니오 드 놀리(António de Noli), 베니스人 까다모스토(Cadamosto)와 같은 천문학자, 지도 작성술가, 그리고 항해가들을 초빙하는 한편 무어人, 인디아人 그리고 아비시니아(Abexin)人들을 정보원으로 고용함으로써 해결했다.

『기네의 발견과 정복에 관한 연대기 *Crónica do Descobrimento e Conquista da Guiné*』를 저술한 고메스 이아네스 드 주라라(Gomes Eanes de Zurara)는 항해 왕자 엔리크가 기네의 땅을 찾도록 지시했던 다섯 가지 이유¹³⁾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선 항해 왕자는 카나리아 群島와 보자도르 岬 너머에 있는 땅을 알고 싶은 욕망이 매우 강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언급한 岬 너머에 있는 땅의 특색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당시 葡王國을 통치했던 그의 主君이자 형님이신 동 두아르드(D. Duarte)와 神에 대한 봉사로……진실을 알고자 그의 배들을 그 곳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발견된 땅에 흑시 基督教人들의 王國이 있으면 많은 商品을 가져가서 훌륭한 市場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항해 왕자는 그 交易이 그 곳 주민들에게도 큰 이익을 제공하리라 믿었다.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의 무어인 勢力이 일반적인 견해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勢力圈을 알고 싶은 욕망이 항해 왕자를 강하게 충동시켰던 것이다.

네 번째로는, 무어인들과 투쟁했던 수 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싸움에서 도움을 줄 만한 기독교국의 왕이나 군주가 이 땅 밖에는 결코 없었다. 따라서 항해 왕자는 신앙의 적에 대항해 싸울 때 그에게 강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행사하며 도와 줄 기독교국의 군주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졌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신앙을 확장하고 구원받으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5C의 유럽 팽창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人物이었던 항해 왕자의 생각이 지리에 관한 지식을 서아프리카의 보자도르 岬 이남으로 확장시키려는 욕망과 새로운 市場開拓의 필요성, 무슬림 세력권의 확인, 무슬림에 대항할 同盟勢力의 발견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확장에 있었다는 주라라의 지적은 그 시대의 종교관

13) Gomes Eanes de Zurara, *Crónica do Descobrimento e Conquista da Guiné*.

과 國家의 경제적 필요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葡의 해외 팽창 사업은 아프리카 북부에서의 군사적 정복의 필요성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는 없다. 즉, 葡의 팽창주의 정책은 사회의 지배 계급의 각기 다른 관심을 통해 결정되었다. 환언하면 북아프리카의 영토 확장은 귀족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한편 부르주아지 階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착상이었다. 하지만 貴族들의 관심은 부르주아지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까발레이로(Cavaleiro)나 에스쿠데이로(Escudeiro) 같은 소귀족들은 부르주아지의 精神과 그들의 指針에 따라 행동했다.

한편 종교적 동기는 사회·경제적 동기와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었다. 필자는 이 양자간의 관계를 저명한 예수회의 선교사 안토니오 비에이라(Padre António Vieira)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만일 동양과 서인도에서 땅의 보물을 찾으러 갔던 商人들이 없었다면, 하늘의 보물을 운반할 전도사를 누가 운송하였을까? 전도사들은 복음서를 가져갔고 상인들은 전도사를 데려갔다.”

2) 스페인 膨脹主義의 背景

스페인 역시 포르투갈과 함께 유럽의 해외 팽창을 주도할 만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지리적인 면을 보더라도 스페인은 결코 포르투갈에 뒤지지 않는 자연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포르투갈이 위치한 대서양의 일부를 제외하면 북으로 칸타브리아(Cantabria) 산맥에 연한 비스케 만의 대서양, 남으로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 산맥을 따라 지브롤터, 말라가, 카디스, 세빌라 그리고 카르타헤나(Cartagena)의 북아프리카를 마주한 유럽의 최남단, 그리고 동부로는 西地中海에 인접한 발렌시아(Valencia), 바르셀로나(Barcelona)의 입지조건이 좋은 항구들과 발레아레스(Baleares) 제도의 마요르카(Mallorca) 섬들은 일찌기 東地中海로 향하는 교역의 전진기지였다. 그런 고로 아프리카는 피레네(Pyrenées)산맥 남쪽에서 시작된다는 말뜻처럼 북아프리카와 흡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南部의 주민들은 아프리카의 상업 도시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활동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었으며 아울러 1340년 안달루시아의 살라도(Salado) 전투에서 알폰소 11세는 장인인 포르투갈의 아폰소 4세의 도움으로 무어인을 격퇴한 후 지브롤터를 장악함으로써 북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대서양 진출의 호기를 맞았다.¹⁴⁾ 한편 葡와 西 사이에 분쟁중

14) Stanley G. Payne, *A History of Spain and Portugal (1)*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3), p. 145.

이던 카나리아 群島의 문제가 1480년에 해결되고 스페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카톨릭 왕들은 포르투갈의 마테이라와 아소레스 群島의 경우에서처럼 대서양에서 海外膨脹을 위한 주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葡人들의 해양성 천품은 스페인에서도 발견되는 특성이었다. 반도의 南部와 東部에는 이미 기원전 12C에 페니키아인들이 진출해 있었다. 그들은 기원전 1100년에 카디스(Cádiz)市를 세웠고 남부의 말라가, 아드라 등지에 在外商館을 설치하여 식민 거점을 확보했으며, 기원전 8C경에도 그리스인들이 반도의 로테(Rhode)에 정착하였다. 또한 기원전 6C 경에는 카르타고인들도 그리스인들과 더불어 서지중해의 상권 쟁탈전을 벌이며 반도에 정착하였다.

비센스 비베스(Vicens Vives)는 15C에 안달루시아인들이 카나리아의 왕래로 대서양 진출을 시작했음을 상기시키지만 이미 13C 중엽에 까탈란(Catalão)人들은 黑海 交易을 위해 칸디아(Candia), 쉬푸레(Chipre) 그리고 로다스(Rodas)까지 진출했었고, 그밖에도 알렉산드리아와 투네스에도 植民據點을 확보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의 전통적인 海洋性 氣質을 나타내주는 예이다.

해상 팽창을 위한 西人들의 과학과 기술의 축적 역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까스티야에는 이미 8C부터 반도에 정착한 아랍인들의 도움으로 그리스의 천문학과 지리학이 소개되었다. 葡의 항해 왕자 엔리크처럼 까스티야의 기술적 준비는 賢者로 불리운 알폰소 10세(Alfonso X; 1252~1284)의 지적인 후원아래 플레도에 있는 번역학교(Escuela de Traductores)에서 東洋의 수학, 화학, 天文學, 의학과 自然科學書籍들이 번역되면서 기틀을 잡았다.¹⁵⁾

한편 1492년 무어인 王國인 그라나다(Granada)가 함락되기까지의 再征服戰爭期間의 政治, 經濟的 狀況 역시 海外膨脹을 위한 主要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葡가 일찌기 1179년 교황 알렉산더 2세의 교서로 獨立王國임이 확인되었던 데 반해, 스페인은 中世의 재정복 과정에서 까스티야(Castilla), 레온(León), 아라곤(Aragón) 그리고 나바라(Navarra) 王國으로 분리된 채 각자가 통합을 염원했지만 세습적 왕위계승 문제라는 장애 요소로 인하여 요원하기만 했다.

까스티야 王國은 먼 후일 스페인이란 國民國家로의 통합에 있어 중심이 되었는데 그것은 民族國家建立의 의식이 타왕국들에 비해 빨랐고 국왕들의 통솔력과 왕권 강화 정책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까스티야는 이미 11C 중엽인 페르난도(Fernando)의 집권시 레온 王國을 통합하여 양국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양국이

15) Vicens Vives, *Historia de España y América, Social y Económica*, Volumen II (Barcelona: Vicens bolsillo, 1971), p.290.

분리되고 웨르난도 3세가 1230년 다시 통합을 이룬 후인 1236년 코르도바(Córdoba)를 정복하면서 반도 내에서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여기서 필자는 다시 이베리아 반도의 왕국들이 영토 확장의 꿈을 해외에서 추구해야만 했던 이유를 葡와 西의 갈등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현왕으로 알려진 알폰소 10세의 서거 후 왕위 계승 문제와 까스티야의 혼란을 틈타 포르투갈의 동 디니스 왕이 1295년 까스티야 땅을 침공하여 양국 간에 2년간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1297년 알카니세스(Alcanices) 조약이 체결되어 반도 내에서는 양국의 영토 확장의 꿈이 좌절되었던 것에서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또한 앞서 밝힌 바처럼 葡의 王位繼承問題로 야기됐던 전쟁이 끝나고 1411년에 맺어진 평화 협정으로 양국 간의 국경이 확정되면서 팽창의 시도조차 불가능해졌던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5C 말엽 까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王族간의 결혼으로 운 좋게 스페인 국토통일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것은 8C부터 재정복운동이 시작되면서 반도 내의 모든 기독교 왕국들이 원려했던 바였는데 까스티야의 이사벨¹⁶⁾과 아라곤의 웨르난도의 출현으로 쉽게 해결된 것이다.

이들의 결혼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1469년 바야돌리드에서 거행된 양국 간의 婚事¹⁷⁾로 까스티야는 이 연합 왕국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1479년 웨르난도 역시 아라곤 王國의 王位를 계승하자, 이 통합 왕국은 반도의 힘의 균형을 깨뜨렸고 이로 인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전통적인 적대 감정은 더욱 고조되어, 이사벨과 웨르난도는 해외 팽창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에게 강한 경쟁의식을 나타냈다.

스페인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까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의 정치적 통합으로 스페인인들 자신이 국민적 유대감으로 굳게 결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상 카톨릭국왕들(Los Reyes Católicos)이라 불리우는 이사벨 여왕과 웨르난도 왕은 1475년 세고비아(Segovia)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사벨은 對內政策을, 웨르난도는 對外政策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카톨릭국왕들은 근대적 絶對王政의 확립에도 노력했는데 봉건귀족들의 반란을 억제하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한 다음에야 비로소 절대왕정은 완성되었고, 이후 봉건귀족은 영지에서 물러나와 궁정 귀족으로 변모했고 王政의 관료 제도 속에 편입되었으며, 시스네로스(Cisneros) 추기경의 협조로 상비군도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화된 民族國家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카톨릭王들은 팽창 정책으로 눈길

16) 그녀는 카스티야의 후안 2세(D. Juan II)와 포르투갈 출신 왕비 이사벨(D. Isabel) 사이에서 태어났다.

17) Luis Suárez Fernández, *Historia de España, Los Trastámara y Los Reyes Católicos* (Madrid: Editorial Gredos, 1985), p.207.

을 돌렸다. 그들은 해외 영토의 征服을 再征服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까스티야는 葡와는 달리 재정복 전쟁을 전후하여 이미 상업 입국으로 부상하였고 아라곤 역시도 지중해에서의 활발한 교역 정책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팽창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오랜 국토 회복운동의 전개와 이후의 통합 실현으로 정치, 사회적인 이유에서 강렬한 팽창의 욕구가 생겨났으며 아울러 이슬람 세력과의 투쟁으로 야기된 증오심이 해외 팽창의 宗教的인 動機를 유발했다고 본다. 따라서 스페인의 경우도 팽창 정책의 동기를 크게는 商業的인 面과 宗教的인 面에서 찾을 수 있다.

빈센스 비베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재정복 기간에 까탈란과 까스티야인들이 대서양, 동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쌓은 商業的 경험을 토대로 스페인은 해외 팽창 정책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발견과 정복의 목적을 군사적 행위에 의한 富와 명성의 추구에 두었던 스페인의 귀족주의적 정책은 포르투갈에 비해 상업적 관심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까스티야와 까탈란의 상업적 관심은 재정복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발견의 시대를 탄생시킨 주요한 동기를 이루었다. 따라서 재정복기의 경제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동기는 규명될 수 있다.

펠르난도 드 로스 리오스(Fernando de los Ríos)는 “스페인은 그들의 역사의 바로 그 순간에 두 종류의 호전적 활동을 강요받았다: 그 하나는 군국주의자들의 그것이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었는데 전자는 권력, 부 그리고 영토를 정복하려는 목적이었고 후자는 주된 목적이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고수에 있었다”¹⁸⁾ 는 표현으로 팽창주의 정책에 있어 종교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동기와 종교적 동기, 양자 간에는 분명히 共生(Symbiosis)의 현상을 발생시킨 공통적인 목적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복 전쟁의 막바지에 이사벨 女王의 끓어오르는 종교적 열정은 당연히 宗教的 使命感을 콜론의 대서양 횡단 여행 계획에 주입시켰다.

스페인 역사상 가장 뜻깊은 해로 평가되는 1492년 8월에 그녀는 재정복의 성공에 대해 神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와 이교도에 대한 적개심의 연장으로 콜론의 여행을 수락했던 것이다.

3. 絶對王政과 식민 정책

1) 포르투갈의 절대 왕정과 식민 정책

18) C.H. Haring, *The Spanish Empire in America* (New York: A Harbinger Book, 1963), p. 166.

포르투갈의 해외 팽창 정책은 아비스(Aviz) 王朝¹⁹⁾의 초대왕인 동 조앙 1세(D. João I, 1385~1433)로부터 시작되었다. 1383~1385년의 시민혁명으로 전통적 귀족 계급이 붕괴되고 국민의 지원에 힘입어 王位에 올랐던 그는 15C에 유럽의 전반적 사조에 따른 中央集權政策을 시작했다. 당시의 포르투갈 국가조직은 지방에 파견된 국왕의 대리인의 권한이 증대되고 자치도시(Concelho)의 시민들과 귀족의 특권이 축소되고 있었다.

디오고 로페스 레벨로(Diogo Lopes Rebelo)와 제로니모 오소리오(D. Jerónimo Osório)가 연구한 15C 葡의 王權強化政策은 효과적인 중앙집권적 제도의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권력의 중앙집권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²⁰⁾

이것은 동 조앙 1세의 집권 말기 8년 간에 궁정회의(Cortes)가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었고, 왕실의 관료의 수는 계속 증가했으며 귀족과 성직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던 사실이 입증해 준다.²¹⁾

이러한 포르투갈의 중앙집권적 왕정의 특색은 로마법에서 “군주의 의지는 법의 힘이다”는 쉐이저의 정책 원리를 옹호하는 조앙 다스 레그라스(João das Regras)와 같은 법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룩됐다.

葡가 王權의 지휘 아래 강력한 팽창 정책을 추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 지원을 받는 한편 귀족계급의 특권을 억제하려는 왕들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마르틴스 아폰소는 “동 조앙 2세는 귀족 계급의 기를 꺾어 놓았다, 하지만 동 마누엘은 왕권의 대리 위임자들을 통해 지방 영주의 권한을 예측시키고, 콘셀류(지방 자치도시)의 특권을 축소하면서 지방 행정 기구의 쇠퇴를 야기시켰다. 이로써 군주의 절대적 권력에 모든 사회계층이 예측됨으로써 포르투갈의 절대왕정이 완성되었다”²²⁾고 하면서 포르투갈 절대왕정 성립에 있어 이 두 왕의 역할을 강조한다.

한편 절대왕정과 팽창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초기 근대국가에 있어서 경제정책이었던 重商主義政策의 목적이 植民帝國의 건설이었고 또한 이것만이 國富를 축적할 유일한 方法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이론화된 이 양자의 관계가 포르투갈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하여 식민제국 건설의 원인을 규명코자 한다.

19) 동 조앙 1세로부터 시작되어 동 엔리크(D. Henrique)에 이르는 8대의 1385~1580년까지 지속된 포르투갈의 제 2 王朝를 일컫는 표현임.

20) Centro de Estudos/Divulgação, *Expansão e Organização do Império* (Séc XV-XVI) (Mem Martins: Edições Sebenta, 1988), p.78.

21) A. Martins Afonso, *op. cit.*, p.54.

22) *Ibid.*, p.58.

포르투갈이 맨처음 膨脹政策을 추구한 것은 1415년 북아프리카의 세우타(Ceuta) 정복이었고 이 시기는 동 조앙 1세의 집권 중반기이며 카스티야와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아직은 전쟁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때였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戰爭貴族(nobreza aguerrida)은 그들의 정력을 분출할 곳을 찾으며 王權에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해 있었고, 급격히 부상한 부르주아지도 경제적 불황 속에서 분출구를 찾고 있었다.

주로 葡의 初期膨脹政策의 목표를 중세 말의 宗教的 使命感을 앞세운 호전적 군사주의에서 근거를 찾는 현대의 역사 서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면서 많은 學者들은 近代國家 成立 初期의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즉, 안토니오 세르지오(António Sergio)는 세우타 정복의 결정적 요인은 당시 葡의 부족한 곡물 수요가 절실히 요구됐고²³⁾, 金과 銀의 부족으로 수단의 金이 유입되는 통로를 확보 하려는 의도와 무어인 해적의 제압으로 지중해 입구를 통과하는 유럽 交易船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며, 마갈냐이스 고딘뉴(Magalhães Godinho)는 이러한 목적 외에도 어로 구역의 확장, 북아프리카에서 카스티야 세력 확장의 저지, 경제적 불황에 따른 貴族所得 감소의 해소와 토지 공급의 확대, 그리고 군사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보르지스 코엘류(Borges Coelho)는 交易의 증대에 따른 귀금속 수요의 증대와 지리적인 요인으로 그곳이 유럽과 마주한 아프리카의 가장 인접한 곳 중의 하나로서 지중해와 대서양의 해상 교류에 있어 주요한 요새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⁴⁾.

그러나 近代國家의 成長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社會的, 宗教的 요인들도 배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북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시도된 팽창주의 정책은 동 조앙 1세가 자신의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을 고무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航海王者로 잘 알려진 동 조앙 1세의 3男 엔리크는 이 때부터 북아프리카 팽창 정책과 병행하여 大西洋상의 두개의 群島를 발견하고 식민정책을 진행해 나갔다.

그 후에도 아프리카 서해안의 탐사 여행은 계속됐고 1487년 리스본을 출발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olomeu Dias)는 항해사 페로 드 알렌케르(Pero de Alenquer)와 조앙 인판트(Joãos Infante) 선장을 대동하고 南進해 나가다 1488년 ‘폭풍의 곳(cabo das tormentas)’으로 불리웠던 希望峯(cabo da Boa Esperança)에 도달했

23) António Sergio, *Breve Interpretação da História de Portugal* (Lisboa: Sá da Costa, 1979), p. 40.

24) Borges Coelho, *Raízes da Expansão Portuguesa* (Lisboa: Prelo Ed, 1976), p. 75.

다²⁵⁾. 드디어 인도로 향해할 수 있는 통로가 발견된 것이다.

이 통로의 발견으로 동 조양 2세는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향유하고 있었던 東洋產 香料의 직접 교역을 통해서 왕실의 富를 축적하고 葡王國을 강력한 절대 왕정으로 부상시키는 한편 유럽의 商權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신양전파의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려는 생각을 구체화하려 했다. 그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매우 서둘렀다. 그 이유는 그가 거부했으나 카톨릭왕들이 수락했던 지원으로 콜론이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함으로써 스페인이 동양 진출의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印度航路의 發見의 행운은 후계자인 동 마누엘에게로 돌아갔고, 철저한 절대 군주였던 그는 동 조양 2세에게서 王位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해외 팽창의 계획까지도 계승받았던 것이다.

2) 스페인의 절대 왕정과 식민 정책

15C 末~16C 初는 스페인에 있어서 新生君主國(Nuevas Monarquías)²⁶⁾으로 표현된다. 1469년 카스티야의 이사벨과 아라곤의 웨르난도가 결혼하고 두 사람 모두 자국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국의 연합은 운 좋게 성취되었다. 그들은 잉이나 佛에서 처럼 반란 귀족들을 평정시킨 후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해 나갔다. 그러나 스페인은 다른 유럽의 절대왕정과는 달리 무어인들과의 힘든 투쟁을 통해 半島를 재정복하고 또한 결혼으로 두 왕국이 합체되어서 이룩된 新生君主國으로 그 통합은 法的인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정책적인 것이었다.

그들에게 보장된 權利와 法은 카스티야와 아라곤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왕국의 연합이 법률상으로는 정치 제도상으로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비록 두 사람은 결혼으로 맺어졌지만 카스티야에서 웨르난도의 권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1475년의 왕실 문서에 나타난 바로 “카스티야, 레온, 아라곤, 시칠리아의 神의 가호를 받는 절대 군주이신 돈 웨르난도(Don Fernando)와 도냐 이사벨(Doña Isabel)”²⁷⁾이란 칭호는 실제로는 그 많은 영토들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들 각각은 자신의 고유한 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1476년 3월 토로(Toro) 전투에서 카스티야의 王權을 노리고 이곳의 귀족들과 결탁한 葡의 아폰소 5세(Afonso V)를 격퇴한 후 웨르난도와 이사벨은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기도 했던 무질서 상태를 회복하고 귀족들을 복종시키는 문제에 당면했다.

25) António Sérgio, *op. cit.*, pp.55-57.

26) J.H. Elliott, *La España Imperial, 1469~1516* (Barcelona: editorial Vicens-Vives, 1986), p.77.

27) *Ibid.*, p.78.

당대의 연대기 작가 디에고 데 발레라(Diego de Valera)는 두 카톨릭왕이 왕국을 복구하는 데 있어 귀족 세력의 지나친 남용과 무질서를 혐오했던 모든 사회 계층의 지원을 기대했다고 말한다.

카톨릭 왕들은 왕권의 행사로 치안이 유지되자 귀족들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통제는 산티아고(Santiago) 기사단의 통솔권을 왕실로 전환시키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Calatrava) 그리고 알칸타라(Alcántara) 기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티아고 기사단의 규모가 가장 컸고, 기사단들이 소유한 領有地는 엄청난 규모였으며 적어도 1百萬 이상의 封臣(Vassalo)들이 예속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사법 관할권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많은 財産과 權利는 극소수의 귀족들 소유였으며 문자 그대로 국가 안의 또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했다.

1476년 산티아고 기사단의 총수(maestro)가 죽자 이사벨 여왕은 재빠른 조치로 웨르난도를 그 직위에 앉혔다. 그리고 1487년과 1494년에 각각 공백이 된 칼라트라바와 알칸타라 기사단의 총수직도 웨르난도에게 위임했고, 1523년에는 교황의 칙서를 통해 세 기사단을 합체시켰다.

循의 경우 기사단은 王權強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단지 해외 팽창에 전념했던 항해 왕자에게 그리스도 기사단이 양여됨으로써 그 소득이 발견과 식민화 사업에 사용되어 큰 기여를 했지만, 스페인은 기사단의 막대한 재산이 카톨릭 왕들의 왕권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스페인 絶對王政의 對外政策은 1475년의 세고비아 合議로 웨르난도에게 그 권한이 넘어갔다. 그는 능란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며 서유럽의 제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이것은 아라곤王國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1492년 그라나다의 완전한 정복 후 처음으로 그의 대외정책은 프랑코 까탈라나(franco-catalana)와 이탈리아 문제에 집중됐다. 역대 아라곤 왕들은 로세온과 세르데냐의 까탈란 백작령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1489년 메디나 델 캄포(Medina del Campo) 조약으로 英의 도움을 얻어 불란서 침공이 용이하게 됐지만, 불란서의 샤를 8세(Charlos VIII)는 이탈리아 원정대를 파견하면서 西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1493년 바르셀로나(Barcelona) 조약으로 웨르난도에게 로세온과 세르데냐를 양도했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1516년 웨르난도의 죽음으로 까스티야의 王位가 정신 박약자인 딸 후아나(Juana) 공주의 아들인 카를로스(Charlos)에게 넘어가면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王家가 시작된다.

결국 웨르난도의 대외정책은 외국 왕가의 수중에 스페인의 상속권을 넘겨줌으로써 끝맺게 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카톨릭왕들의 생존시에 카스티야와 포르투갈 사이에 傳統的 敵對 感情은 카스티야의 왕위계승 문제에 후자가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더욱 고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강한 경쟁 의식을 느낀 카톨릭왕들이 팽창 정책을 서둘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이한 형태로 이룩된 스페인의 절대왕정은 대외정책과 그라나다 정복전쟁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팽창 정책을 가일층 재축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15C에 카스티야와 포르투갈의 對立이 가장 심각했던 카나리아 群島의 팽창 정책에서 잘 설명된다.

1478년 카톨릭왕들은 세빌라에서 그란 카나리아(Gran Canaria)의 정복을 위해 원정대를 보내면서 이곳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섬주민들의 저항으로 카톨릭왕들의 의도는 성취되지 못했고 결국 1482년에야 알폰소 웨르난데스 데 루고(Alfonso Fernandez de Lugo)가 지휘한 새로운 원정대가 이곳을 정복했고, 라 팔마(La Palma)는 1492년, 그리고 테네리페(Tenerife)는 1493년에 정복됐으며 이로써 카스티야는 최초로 해외에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다.²⁸⁾

카나리아 군도의 정복과 식민화에는 중세 말기에 축적된 기술이 적용되었다. 재정복의 과정과 카나리아의 정복에 채택된 방법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웨르난도와 이사벨이 이 두 정복을 이교도에 대한 聖戰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재정복과 마찬가지로 카나리아의 정복은 公的, 私的 形態의 혼합이었다.

카톨릭왕들은 재정복기의 관례에 따라 카나리아 군도에서 植民들에게 토지의 레파르티미엔토(Repertimiento) 권리를 부여하고 中世의 카스티야의 自治市組織을 이식하여 식민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곳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新大陸航海를 위한 필수적인 기항지로 만들었다. 후일 콜론이 4차레나 이곳을 거쳐 신대륙으로 향했던 사실은 카나리아 군도의 중요성을 입증해 준다.

한편 1486년 제노바의 모험가 콜론(Cristóbal Colón)이 카스티야 王室을 찾았을 때, 그의 제안은 간단히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그라나다 정복전쟁으로 왕실의 국고는 바닥이 났고, 절대 왕정의 구축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콜론이 제시한 계획도 카톨릭왕들에게는 회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91년 웨르난도와 이사벨은 그라나다 전쟁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자 그 계획이 갖는 이점을 생각하게 됐다.

28) C. Pérez-Bustamante, *Compendio de Historia de España* (Madrid: Lope de Vega, 1969), p. 239.

그러나 콜론의 요구 조건이 지나쳤기 때문에 지원 약속은 시간을 끌었다. 콜론이 발견될 땅의 總督과 副王의 직책을 세습제로 요구하였을 때 카톨릭왕들은 封建的權利에 우선하는 왕권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해외 영토의 봉건적 지배는 가당치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카톨릭왕들은 이 계획에 따른 귀족들의 재정 지원도 완강히 거부하며, 콜론에게는 대제독의 세습 직위를 약속하고 또한 신대륙의 산물과 상품 매매 대금의 1/10을 권리로 인정했다.²⁹⁾

콜론의 계획은 교역 활동에서 그를 보호해 주는 국가와의 협력으로 東洋의 富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있었다. 그는 가스티야인들의 상업적 모험심과 카나리아의 植民化에서 얻은 경험이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콜론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가스티야인들은 異教徒의 改宗과 약탈, 땅의 분배 그리고 軍事的 支配政策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역을 위한 기지 설립을 구상했던 그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십자군 정신으로 무장된 가스티야인들의 관습 앞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Ⅲ. 植民帝國의 支配政策

1. 植民帝國의 統治組織

1) 인디아國의 경우

葡와 西의 식민제국은 政策的 特色과 設立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에 따라 광목할 만한 차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양제국이 어떤 형태의 통치조직을 구성하였고, 각 통치 기구에 부여된 기능은 어떤 것이었나를 비교함으로써 초기 식민제국 정책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섯 차례의 遠征隊派遣 동안 이집트 술탄에게 사주된 인디아의 일부 토후들이 交易과 外交關係의 樹立을 방해하며 적대감을 표시하자 葡王室은 東洋政策을 확고히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1506년 인디아國을 設立하여 初代副王으로 알메이다를 임명하였다.³⁰⁾ 그러나 副王制가 設立되기 이전에는 파견된 함대의 사령관들인 까비땅모르(Capitães-mores)가 國王의 대사 역할까지도 수행했는데 코칭, 카나노르 그리고 ڤ올랑과 1503~1505년 사이에 우호조약을 체결한 것도 바로 이들에 의해서였다.³¹⁾

29) J.H. Elliott, *op. cit.*, pp.58-59.

30) Oliveira Martins, *História de Portugal*, 17 edição (Libsoa; Guimarães Editores, 1987), p.212.

31) Pierre Léon, *O Mundo em expansão, Séculos XIV-XVI*, Vol. I, Tomo II (Lisboa; Sá da Costa Editora, 1978), p.401.

한편 초기에 遠征艦隊에 파견됐던 관리, 선원, 군인 그리고 상인들은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 있었지만 얼마 후부터는 함대에 동반했던 商業的 任務를 맡은 상업의 총감독관인 페이토르 제랄(feitor-geral)의 통제를 받았고, 1505년부터는 王室의 獨占體制의 실시로 그 혜택을 제한당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葡王室이 植民統治組織을 구성하고 外交的, 軍事的 그리고 교역상 체제 확립을 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 준다.

포르투갈의 東洋帝國의 概念은 초기와 전성기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양상을 띈다. 즉, 초대 부왕 알메이다가 부임하였던 1506년에는 葡가 동양에 확고하게 정복한 땅이 없었다. 따라서 알부케르크 總督이 고아(Goa)를 점령하고 그 곳을 수도로 한 부왕청을 설립했던 1510년까지 인디아國은 海上에 떠있는 帝國이었고, 알메이다 副王은 배의 갑판을 본거지로 한 물에 떠다니는 副王이었다.³²⁾

복서(Boxer)는 “葡人들은 希望峯과 페르시아만의 아시아 西部地域 그리고 東部の 日本과 티모르(Timor) 사이에 위치한 海岸地帶에서 그들이 발견하고 정복한 지역을 일컫는 명칭으로 인디아國이라 했다”고 설명하며 여기서 희망봉에서 페르시아만까지의 아프리카 東海岸이 인디아國에 포함되는 이유를 “당시 아프리카의 소마리란디아(Somalilândia)에서 소팔라(Sofala)에 이르는 수아일리(Suaili) 海岸은 오랜 기간 동안 政治, 文化 그리고 經濟的 側面에서 아라비아 그리고 인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은 아시아라는 어휘에 포함되어 있었다.”³³⁾고 밝힌다.

실제로 1500년 경에는 동아프리카 수와일리해안의 도시 국가들인 킬로아, 몸바짜, 멜린드 그리고 빠테(Pate)는 리스본과 고아를 연결하는 중간 기항지로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交易市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인디아國은 地理的으로 명백히 한정된 공간이 아니었다. 希望峯에서 후일에는 日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사이에 위치한 印度洋, 수많은 해협과 江河口 등에서 葡王室이 支配하고 보호감독하는 일부지역들, 곳곳에 설치된 築造物들, 투입된 人的 資源과 資産 그리고 통치상의 이해관계 등의 결합체가 진정한 의미의 東洋帝國이라 할 수 있다.

이 제국을 관장하는 최고 통치자는 副王(Vice-Rei) 및 總督(Governador Geral)이

32) Luís Felipe Ferreira Reis Thomaz, *Estrutura Política e Administrativa do Estado da Índia no Século XVI* (Lisboa: Instituto de Investigações Científica Tropical, 1985), p. 519.

33) C.R. Boxer, *O Império Colonial Português [1415~1825]* (Lisboa: Edições 70, 1969), p. 59.

있고 그 하부기관으로는 일반행정을 총괄하는 1인의 行政長官(Secretário), 國王의 稅金徵收과 왕실의 독립사업을 관장하는 3인의 재정감독관(Vedor da Fazenda) 그리고 帝國市民들의 法秩序과 治安을 담당한 1인의 총청문관(Ouvidor Geral)이 있었다.

동양제국의 設立 이전에 葡王室은 이미 대서양의 마테이라와 아소레스 군도에 까삐타니아(Capitania)와 도나타리오(Donatário)와 같은 일종의 封建制的 植民組織을 갖추고 있었고,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도 재외상관을 설치하여 왕실의 수입을 관장하는 상관장과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청문관의 도움을 받아, 총독이나 사령관이 통치를 총괄하게 했었다.

그러나 국왕은 동양제국은 그 규모나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상의 이유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왕실 자문위원회의 요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동양제국의 통치조직은 그 정책이나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공동 협력관계나 상호간의 보호관계로 이룩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왕권과 왕실 재정수입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조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2) 西領 아메리카 帝國의 경우

발견과 개발의 시대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미주대륙 침투가 시작되었다. 발견과 정복의 과업은 정복자들에 의해 이룩되었다. 그러나 정복지의 식민사업과 인디오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植民地의 制度的 統治가 필요했다.

16C 초반,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 스페인의 근본적인 政策과 統治 機構는 일반적으로 본국의 국왕에 의해 포상으로 인정되거나, 植民化事業의 확실한 통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용된 까삐톨라시온(Capitulación)의 내용에 따라 征服者에게 허용된 직할구 통치제도(Gobernación)로 행해졌다.³⁴⁾ 코베르나시온의 형태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즉, 總督겸 總司令官(Gobernador e Capitán General), 총독겸 市長(Gobernador e Alcalde Mayor), 軍司令官(Adelantado), 인디오 거주지의 治安官(Corregidor), 그리고 세습적 직위에 불과했던 총독(Gobernador)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식민지시대 초기에 모든 정복자들에게 허용했던 통치권은 실제로는 왕실이 마지 못해 인정한 직위였다. 征服者의 時代에는 정복자들 자신이 먼저 임명한 모든 직책을 국왕에게 통보했고 그 직책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은 큰 이의없이 국왕

34) J. Vicens Vives, *Historia de España y América social y económica*, Vol. Ⅲ (Barcelona: Vicens bolsillo, 1982), p.374.

에 의해 수락되었다. 따라서 이베리아 반도의 행정 규범과 정당한 법규의 엄격한 적용은 식민지에서는 불가능했고 정복지에서 정복자의 특별한 권리가 전적으로 인정되는 실정이었다. 이로써 정복자들은 그들을 도와 정복을 수행한 자들의 포상, 주요 직책 기용 그리고 정복지 보호를 위한 식민사업 등을 국왕의 간섭없이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배계층에 있는 정복자들의 세력부상을 막을 수 있는 국가의 중앙통제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리하여 발견 초기부터 발견자와 정복자들의 세습적 특권은 점차 소멸되었고, 후일에는 그 직위 자체가 권력의 실효성을 상실한 名譽職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결과로 發見者들의 수익은 감소되었고, 國王의 祿俸마저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例는 포르테스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식민지 시대의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통치 조직은 16C의 합스부르크 王家의 產物이었다. 정부 조직은 카를로스 1세와 펠리페 2세가 고안했고, 조직의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임명은 식민지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복자들의 무질서를 통제하며 산재된 王領의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主要機構는 까빌도스(Cabildos), 아우디엔시아스(Audiencias) 그리고 副王과 총사령관을 비롯한 하급 보조기관이었다.

정복자들의 시대의 우선적인 과제는 점령지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都市들을 다스리는 市議會는 까빌도였다. 의회의 議員職은 큰 명예로 간주되었는데, 지역의 자치 관리를 맡는 평의원인 레히도레스(regidores)와 司法業務를 맡는 알칼데스 오르디나리오스(alcaldes ordinarios)로 구분되었다.

殖民地 行政의 技術的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國王은 많은 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거나 總督을 조인하고 그 직권을 제한하여 有故時에는 직권을 대행토록 했다. 이들은 司法權을 지닌 市長의 일종인 alcaldes mayores letrados나 tenientes letrados 그리고 출납관(Contadores), 재무관(Tesoreros), 상업대리인(Factores) 그리고 감독관(Vedores) 등으로서 王室의 統制를 받았다.

한편 카를로스 1세의 스페인 王室은 식민지의 중추신경이었던 도시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포고령을 통해 까빌도의 공정하고 능률적인 통치를 강요했다. 의원들은 私的인 利益을 위해 일할 수 없었고 정기적으로 검열도 받아야 했다. 따라서 까빌도가 公的인 精神과 良心을 지닌 기관이 되도록 1523년에 카를로스 1세는 議員을 土地所有者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포고했지만 이익이 남는 이 직위를 펠리페 2세의 통치 초기부터는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까빌도의 상위 기관으로는 아우디엔시아(Audiencia)가 있었다. 아우디엔시아는 1511년에 최초로 산토 도밍고에 설립되었는데 정복지의 총독들에 대한國王의 사법적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일종의 上告裁判所였다. 이 제도는 원래 반도 내에서 中世에 있었던 것으로國王이 征服者나 식민지의 유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 아우디엔시아의 構成員인 오이도레스(Oidores)는 초기에 3~4인이었고 후에는 2배로 늘어났는데, 주로 총독의 통치에 대한 諮問役割을 맡았으나 그 주된 기능은 식민지의 中央集權을 위해 강력한 司法權을 행사하며, 征服者들의 無政府的인 個人主義를 견제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었다.

아우디엔시아의 출현은 라틴아메리카 植民地에서 스페인의 법적인 통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며 정복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副王制의 실시와도 연관을 갖게 된다. 征服의 질서에 반대하고 법질서와 王室의 직접통제를 강요하려는 의도로 아우디엔시아는 1542년의 인디아스 新法(Leys Nuevas)이나 1563년의 포고령(Ordenanzas)으로 그 法的 機能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스페인 王室은 식민지에서 中央集權主義의 결정적인 정착을 위해 멕시코와 리마에 각각 1535년과 1543년에 副王領을 설치했는데 이 植民地의 最高統治機構는 멕시코에서 16C 중엽에, 그리고 리마에서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진 플레도 副王의 통치기인 1568~1580년에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³⁵⁾ 副王의 資格은 포르투갈의 인디아國과 마찬가지로 카스티야의 貴族家門에 한정했다. 이 식민지의 最高職責은 1492년에 콜론에게 부여되었고 1536년에 완전히 소멸된 征服者들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종전의 정복자들이 향유했던 世襲權이 副王의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되었고 단지 관료로서 국왕의 녹봉을 받는 직위로 변했을 뿐이었다.

헤링(Herring)은 副王職에 대해 “副王은 식민지에서 君主의 명성과 힘을 대신했다. 그의 권위는 시가지에 세워진 개선문, 司法官들과 聖職者들의 품위있는 의상행렬, 축하연 그리고 가장행렬로 이어지는 화려한 환영식으로 입증된다.”³⁶⁾고 말한다. 그러나 부왕의 權利는 君主의 효과적인 통치 조직으로 견제를 받았다.

副王制는 정복지의 식민사업과 개척으로 그 領域이 크게 확대되자 멕시코와 페루의 두 개로는 방대한 지역의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717년에는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를 한 데 묶어서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의 짚마 페(Santa Fe) 부왕령과 1776년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합쳐서 라 플라타(La Plata) 부왕령을 新設했다.

35) J. Vicens Vives, *op. cit.*, p.379.

36) Hurburt Herring, *op. cit.*, p.160.

이처럼 스페인王室은 식민지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초창기의 征服者들에게 보상과 은례(merced)로써 제공했던 관직을 中央集權主義의 官僚制로 전환하고,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성직자는 레지오 파트로나토(Regio Patronato)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國王에게 예속시켰다. 이와 같이 國王의 통제하에 설립된 페루의 부왕령은 1531년 삐사로의 征服과 統治를 시작으로 1544년에 부임한 블라스코 누네스 벨라(Blasco Nuñez Vela) 부왕으로부터 호세 데 라 세르나(José de la Serna, 1821~1824)까지, 그리고 멕시코 부왕령은 코르테스의 정복(1519)과 통치를 시작으로 1차와 2차 아우멘시아 정부(1527~1531, 1531~1535)를 거쳐 1821년의 후안 오도노후(Juan O'Donoju)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기능이나 권한의 성격면에서도 포르투갈의 동양제국을 책임 맡은 부왕이나 총독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2. 帝國支配政策의 전개

1) 인디아國의 支配政策

동 마누엘왕이 전국에 바스코 다 가마의 귀환을 환영하는 축제를 열도록 지시했을 때, 그는 결코 잘못 생각하지 않았었다. 다 가마의 여행과 더불어 실제로 포르투갈歷史의 새로운 주기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東洋帝國의 운명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인디아國의 設立時까지 무어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葡의 政策에 강력히 맞서서 交易과 定着을 방해했다. 따라서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포르투갈의 왕은 적대자의 제거에 있어서만은 그 어떤 協商도 용납치 않는 오직 전투를 통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리스본의 궁정회의(as cortes)나 왕실 자문위원회는 원거리에서의 군사 활동의 어려움이나 막대한 경비 문제로 회의감을 표시했고 종교적 측면에서도 무력에 의한 지배는 福音化事業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동 조앙 2세 통치기부터 확고하게 정착된 絶對王政下에서 국왕의 용단과 동양제국이 제공하게 될 엄청난 이익 앞에서 소수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동 마누엘의 통치기(1495~1521)는 帝國膨脹의 최전성기로 평가된다. 東洋帝國이 창건된 이래 이 기간에는 5대(1副王, 4總督)의 식민 정부가 유지되었다. 이들 중 지혜롭고 총명하며 용맹스러웠던 1대 副王 알메이다(Almeida)와 하나발에 비유되었던 알부케르크(Albuquerque) 總督은 눈부신 활약으로 東洋에서 葡帝國의 가장 성공적인 군사적 지배를 실현했다.³⁷⁾

37) Oliveira Martins, *História de Portugal* Vol. I (Mem Martins: livro de bolso europa-américa, 1988), p. 179.

일찌기 알메이다는 동양을 철저히 연구하여 海上帝國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리스본의 마누엘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인디아에는 그들의 교역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력이 있는 육신과도 같은 入口과 出口가 있습니다. 만일 교역을 유지해 주는 요인들의 출입을 그에게서 제거해 버리면 그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해운입니다. 오직 해운 활동으로서만이 인디아의 交易의 두 가지 통로인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해운 활동을 통해서만이 인디아에서 극동으로 향하는 이동로인 말라카 반도가 지배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해운 활동으로써만이 유럽을 향해 우리가 발견한 希望峯 루트의 특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³⁸⁾

동 마누엘 왕이 2代 총독으로 임명한 아폰소 드 알부게르끄(Afonso de Albuquerque)는 이미 동 아폰소 5세 통치기에도 아르질라(Arzila) 요새에서 뛰어난 戰士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고 1503년에는 마누엘 국왕에 의해 東洋遠征隊의 總司令官으로 임명되어 코칭에 요새를 세우고 ڤ올랑 王國과도 동맹을 맺었던 人物이었다. 동 마누엘은 그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하고 1509~1514년의 6년간 동양제국의 통치를 위임했는데 그가 이 기간에 이룬 업적은 그를 본질적인 동양제국의 창립자로 간주할 만한 것이었다. 알부게르끄는 바다의 支配에만 만족하지 않았고 육지에서도 政治의 主導權과 商權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임자가 육지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어렵게 생각하고 오직 바다에만 치중했던 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알메이다 부왕이 왕실의 지시만을 수행했던 반면에 알부게르끄는 “葡의 동양 지배의 方位起點”을 관망할 줄 알았던 것이다.

알부게르끄의 死後 1515년부터 충성심과 강직성이 프루파르코(Plutarco)에 비유되던 동 조앙 드 까스트로(D. João de Castro) 副王의 통치기(1543~1548)까지는葡의 東洋帝 운영에 있어 가장 안정된 시기로 간주된다. 이 기간 동안 10人的 總督 및 副王들은 帝國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했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알부게르끄의 명성을 따르지 못했다.

역시 동 조앙 3세의 통치기였던 1543년에는 알메이다, 알부게르끄와 더불어 東洋帝國의 3대 英雄으로 간주되는 동 조앙 드 까스트로(D. João de Castro, 1543~1548)가 13代 副王으로 임명되어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1550년 이후부터 葡의 東洋帝國의 운영은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帝國의 팽창으로 葡王室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담이 컸다. 행정을 담당한 대부분의 귀족관료들은 사회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보다는 그들의

38) Oliveira Martins, *op. cit.*, p. 183.

利權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16C 중반부터는 페르시아만의 아라비아 通路를 우회하여 이 지역의 交易路를 지배하려는 葡王室의 계획이 다시 부활되었다. 티그리스(Tigres)와 유프라테스(Eufrates)江 河口에서 14레구아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쓰라市는 東地中海 交易의 中心으로서 1547년 투르크에게 점령되었었지만, 葡의 인디아 함대의 집요한 공격으로 몇 년 후에는 이 도시가 다시 마아메드 아세난(Maamed Asenan) 王의 소유지로 되돌아 왔다. 따라서 바쓰라의 住民들은 葡人들의 商去來 活動에 많은 특혜를 베풀었다. 1560년 경에는 또다시 투르크의 공격이 예상되었고, 葡王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바쓰라市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으나, 몰루카스(Molucas) 諸島에서 더욱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은 포기되고 말았다. 이후부터 葡의 東洋帝國은 또다시 王室의 일방적인 政策路線에 불만을 품은 要塞司令官들의 명령 불복종으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말라카, 까나노르, 다망(Damās), 고아 그리고 샤올 등에서 추방되었던 土侯들이 再征服을 시도하면서 인디아國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16C 末까지도 東洋의 상황은 쉽게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王室政策의 不在, 交易를 보호하고 요새를 수호할 방법의 결여, 東洋의 土侯들의 날로 증가하는 好戰性, 관료들의 부패와 타락, 이 모든 것들로 인해 10代 副王 동 루이스 드 아타이드(D. Luis de Ataide, 1568~1571)의 후임자들부터는 帝國의 운명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1580년에는 葡王室이 스페인에 合併되면서 독립을 상실하게 되자 인디아國의 운명은 점차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2) 西領 아메리카 帝國의 支配政策

征服者들의 時代에 카스티야 귀족의 칭호는 정복자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댓가로 신대륙에서 얻는 광활한 영지와 함께 가장 열망했던 보상이었다. 정복자들은 중세의 이베리아 반도의 再征服戰爭과 十字軍運動의 목적인 정복과 이교도 세계에 대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였던 전사들이 얻어낸 것과 동일한 것을 신세계에서도 성취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정복자들은 카리브제도에서 식민화의 과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던 탓에 카스티야에서 그들의 명성이 실추되었다 할지라도, 英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싸웠고 그 댓가로 귀족의 직위나 영지 지배권을 얻었던 것이다. 정복자들은 곧 식민자로 변모해 갔다.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직위는 총독이었다. 이론적으로 이 직위는 국왕의 의지로 사전통고 없이도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군주의 정치권력의 한정된 代表權者였다. 실제로 이 고베르나도르—곤카스마도르(Gobernador-Conquistador)는 그 일부가 국왕의 명령으로 일찍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정복의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전우들을 위해 새로운 식민지의 지배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類似封建社會(cuasi-feudal)의 세습적 지배 귀족이 되었다.

정복자들이 식민자로 전환되면서 신대륙에서 시행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엔피미엔다(encomienda)로서 1503년 이사벨여왕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征服者에서 植民者로 전환된 대표적인 例는 ڤ르메스와 빠사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신대륙에서 비교적 쉽게 적용된 이유는 인디오들이 이미 農業經濟의 制度的 勞動活動에 습관화된 반미개인들로서 그들 대다수가 이미 자신의 王이나 추장 밑에서 勞動力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엔피미엔다로의 전환은 예전의 관습을 과격하게 깨뜨리지 않고 단지 주인만 바뀐 것으로 해결되었다. 新大陸에서의 이 제도는 卡斯티야王의 충실한 봉신으로서 征服者—總督들이 각기 관할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에 임하면서 지배의 원활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새롭고 놀라운 제도로 전환되었다.

副王制度가 設立되기 이전의 아메리카 植民社會는 最高主權者로서의 王, 海外領土에서 그의 代理人으로서의 總督, 王의 封臣으로서, 그리고 엔피미엔다에 소속된 인디오의 主人으로서의 엔피멘테로는 뼈와 神經(los huesos y los nervios)의 관계였다. 그러나 征服者들이 이 制度를 점차 악용하며 治富하자, 스페인 王室은 그들의 특권을 축소하면서 中央集權化된 組織을 창건하기 위해 30년 이상을 노력했다. 王室은 대서양의 반대편에서 통제의 방법이 없었던 봉건의 잔재인 新興領主貴族의 출현을 방관할 수단은 없었던 것이다.

1520년 스페인의 國王 까를로스 1세는 이 제도의 폐지를 명했다. 그러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 계획은 포기되었고, 1526년에는 새로운 規定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인디오들이 지급하는 租稅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그것이 보호자인 엔피멘테로가 아닌 國王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이 조세는 식민자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댓가가 아니고, 國王이 그들에게 양도한 은례(merced)와 補償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까를로스 1세는 엔피멘테로들의 세력을 장악하고 식민지 통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임명한 많은 官吏들을 식민지에 파견하는 한편 1527~1531년에 제 1차 아우디엔시아, 1531~1535년에는 제 2차 아우디엔시아 制度를 실시하고, 1535년에는 누에바 에스파냐 副王領을 설립하여 고베르나도르—콘게스따도르의 권력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1542년에는 페루에도 부왕령이 설립되면서 신대륙에서 征服은 平和政策에 그 자리를 양보했다. 정복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원주민이 가장 밀집한 지역에 植民地官僚制度의 최고기관이 들어섰다. 이들 지역은 1545~1565년

에 發見된 가장 생산성 높은 金, 銀鑛이 있는 곳들이었다.

까스띠요(Guillermo Céspedes del Castillo)는 정복자들의 식민시대가 지나가고 1550~1620년까지를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植民帝國의 창립단계(Etapa de Fundación)로 규정짓는다. 이 단계는 예외없이 국왕처럼 정직하고, 근면하며, 분별력있고 규율바른 官吏들이 지배하였던 필리페 2세의 통치기였다.

스페인의 식민정책은 1570년까지의 帝國의 造成期, 1570~1590년의 全盛期, 1595년까지의 완만한 衰頹期 그리고 1620년까지를 다음 단계인 공고화 단계(Etapa de Consolidación, 1621~1700)로의 이행기로 구분된다. 帝國의 造成期인 1535년에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령 설립이 있었다. 初代 副王인 텐디야(Tendilla)의 백작 안토니오 데 멘도사(Antonio de Mendoza, 1535~1550)는 16C의 거의 모든 부왕들처럼 까스티야의 귀족 출신이었고 그의 계승자인 루이스 데 벨라스코(Luis de Velasco, 1550~1564)는 헬리페 2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서 양자 모두 15년간이나 멕시코를 통치했다. 이 두 부왕의 임무는 부왕 제도의 효율적인 조직, 영토의 방어와 팽창, 1542년의 新法(Leys Nuevas)의 적용, 최초의 콜레히오(colegio)와 1551년 멕시코 최초의 대학 설립, 1555년 멕시코 최초의 종교회의의 소집령, 그리고 1564년 원정대 파견으로 필리핀의 식민화 착수 등을 수행하는 데 집중되었다.

군주의 권리를 위임받은 부왕에게는 까스티야의 해외 속령의 통치와 식민지의 주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관계자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선도할 근본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이지만 실제로는 부왕의 권위는 수많은 다른 힘들, 즉 아우디엔시아나 특별한 법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인 종교 단체나 상업 길드 등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다.

페루의 부왕제는 1544년에 시작되었지만 1551년까지 부왕들은 신법에 저항하는 엔코멘테로들의 모반으로부터 영토의 평정을 도모하는 방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헬리페 2세가 페루의 부왕으로 멘도사를 임명한 것은 이미 조직이 잘 정비된 누에바 에스파냐보다 페루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가 멕시코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이 페루의 부왕으로 승진하는 관례를 만들었다. 이같은 경우는 드물긴 했지만 이 때부터 리마의 副王職은 스페인의 海外植民地에서 가장 높은 직책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16C의 副王들의 통치 임무는 그들에게 귀속된 권위와 실권의 덕택에 이룩될 수 있었다. 부왕의 권위는 까스티야 귀족들의 그것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맹목적으로 존경받는 군주의 개인적 대리인의 특색이 강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국왕의 대표로서의 권력이었지만 이것은 거의 제한되지 않은 권력이기도 했다.

1550~1570년의 제국조성기의 중심이 부왕이었다면, 1570~1590년의 전성기는 본국에 설치된 인디아스 자문위원회(Consejo de Indias)의 진정한 개혁이 실현된 시기였다.³⁹⁾ 인디아스 자문위원회는 1524년 카를로스 1세 때 설립되어 신대륙 문제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1834년까지 지속된 기구로서 1566년 펠리페 2세의 지시에 의해 법률가 후안 데 오반도(Juan de Ovando)의 감찰을 받았다.

또한 이 全盛期에는 아메리카의 스페인인들이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성취했고, 海外植民地의 高位裁判官의 선정에도 특별한 주의가 집중되어 이미 1543~1563년에 設立되었던 최고 재판소의 판관 뿐만 아니라 副王들의 법률 보좌역에 이들이 기용되면서 식민지 사법제도의 발전을 이룩했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기는 풍요로운 銀鑛의 發見과 일치된다. 이 때부터 鑛山業은 新大陸經濟의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되었고 산출된 귀금속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수송되면서 大西洋의 海上交易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IV. 植民帝國의 交易政策

1. 重商主義의 기반

葡人들은 인디아의 칼리꾸프에 도착했을 때 “향료와 기독교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西人들도 역시 멕시코의 정복기를 기술한 베르날 디아스(Bernal Díaz)의 표현처럼 “정복자들이 神과 國王께 봉사하고 어둠속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을 주고 부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항해 왕자 엔리크도 1400년대 葡의 팽창주의 이념을 기독교 신앙의 확장과 新市場의 개척에서 찾았고, 再征服으로 스페인을 통합한 카톨릭王들도 十字軍의 使命과 더불어 東洋의 富를 추구하기 위해 콜론의 여행 계획을 수락했었다. 이처럼 兩國의 植民政策은 전장에서 밝힌 바 처럼 그 목적을 절대왕정의 국가경제 실천을 위한 重商主義政策의 수행에 두고 있었다.

프리트츠 뢰리그(Fritz Rörig)는 그의 논문에서 “중세의 세계는 이미 세계 경제를 향유하고 있었으니, 東洋과의 香料과 비단 교역, 북유럽인들의 원거리 항해와 아랍인들의 중개에 의한 교역 활동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여행가와 선교사들의 여행으로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⁴⁰⁾고 밝힌다. 그러나 중세의 한정된 활동에 비해 근대 초기에 葡와 西가 東洋과 新大陸에서 이룩한 팽창주의 정책은 전세계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市場 形成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같이

39) Guillermo Céspedes del Castillo, *op. cit.*, p.101.

40) E.E. Rich,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IV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220.

새로운 임무에 직면한 양대 식민제국은 그들 자신의 경제조직을 변화시키고 발전된 기술을 적용시키며 자본의 활용을 통해 왕실이 직접 경제 제반사에 참여하는 통제적 식민경제 정책을 추구해 나갔다. 그들의 이러한 方法이 바로 重商主義政策이었으며 이 두 절대주의 國家에 의해 수행된 정책은 國富增進을 목적으로 하는 植民帝國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이기도 했다. 葡와 西는 이와 같은 植民化의 重商主義的 形態를 취하면서 특이한 관련 제도를 통해 하부 구조를 조직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갔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팽창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葡는 東洋에 植民帝國을 設立하기 이전에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南下하면서 交易活動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스페인도 葡를 모방하고 있었다. 이 두 국가들은 해외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 앞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15C 末~18C 末의 기간에 식민 활동의 주역이었던 葡, 西, 和, 佛 그리고 英의 5개국의 팽창주의를 비교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葡와 西가 이들 3국과는 분명히 상이한 방법으로 제국정책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이다. 즉, 兩國의 政策은 완전히 國家의 主導 하에서 시행됐지만 다른 국가들은 주로 特許會社를 통해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클로우(Clough)와 랫(Rapp)은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진술적 계율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첫째, 국가간의 교역은 적절하게만 행해진다면 그것은 국가의 富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된다. 둘째, 국가들간의 오랜 기간의 교역은 서로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기 때문이다. 이진다는 것은 地金의 순수한 유입을 성취하는 것이고 진다는 것은 地金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역은 국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는 민족적 목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해외 식민지의 소유는 스페인의 경우처럼 金銀鑛의 직접 개발을 통해서, 葡와 和의 경우처럼 교역 상품의 근원지를 확보함으로써, 또는 英의 경우처럼 교역을 위한 시장을 창조함으로써 富를 취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⁴¹⁾

植民體制는 르네상스와 불란서革命 사이의 植民時代に 식민지와 본국 간의 관계로 일컬어지며 많은 역사가들은 양자의 관계를 重商主義時代의 舊植民體制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구체제, 즉 舊帝國主義國家의 帝國政策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들의 제도와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책의 목적이 조망되기 때문이다.

초기 중상주의의 주역들인 葡와 西는 각기 本國의 諸般狀況과 植民地의 特性에

41) Shepard B. Clough and Richard T. Rapp, *European Economic History*, third edition (Tokyo: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1968), pp.227-228.

다른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일반적으로 植民帝國政策을 論함에 있어 理論家들은 葡를 東洋의 선구적 개척자로, 반면에 스페인은 신대륙 개척의 선구자로 평가하여, 葡의 重商主義가 東洋의 香料交易을 獨占하고 貿易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스페인은 배금주의(bullionism)에 입각한 金, 銀의 해외 유출금지와 신대륙 귀금속의 독점 수입을 통해 실행되면서, 16C에 兩國을 유럽의 經濟的 最強國으로 부상시켰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국의 重商主義政策의 기본적 배경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交易政策의 組織과 役割

1) 포르투갈 交易政策의 조직과 역할

“나는 누차에 걸쳐 인디아 무역관(Casa da India)에서 수많은 商人들이 구입한 香料의 대금을 지급하려고 金과 銀貨로 가득찬 자루를 지니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관리들은 商人들에게 다음 날 오도록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매일 받는 돈의 액수가 엄청난 것이어서 일일이 헤아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⁴²⁾

위의 기록에서처럼 東洋과의 交易은 압도적으로 香料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교역의 經濟的 重要性으로 왕실은 私的인 商人組合을 허용하면서도, 독점 체제로 직접 이를 개발해 나갔다.

따라서 독점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商品을 구매하고 운송한 다음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조직망이었다. 이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통해서 葡王室의 정책 목표와 특징 그리고 葡의 重商主義의 性格이 확연히 밝혀진다.

당시 葡王室에게 先支配를 위해 설립된 통치 조직과 병행하여 交易을 관장할 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葡王室과 인디아國의 통제 하에서 무역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리스본과 유럽의 主要 商業都市 그리고 葡와 인디아 般路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들에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산물의 교역은 동양 재외상관(feitorias do Oriente) 조직망, 인디아 貿易館(Casa da India) 그리고 플랑드르의 재외상관(feitoria do Flandre)에 의해 실행되었다. 교역의 절차를 살펴보면, 동양의 산물들은 동양 각 지역의 재외상관들이 구입하였고, 본국의 리스본에 운반되면 인디아 무역관에서 상품이 구매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플랑드르의 재외상관은 인디아에서 보내온 상품을 북유럽의 商人들에게 분배하고 交易代價物을 구입했다.

42) Damião de Goiás의 리스본 묘사에서 Centro de Estudos/Divulgação, *op. cit.*, p. 58.

이 세 개의 조직망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는 인디아 무역관이었다. 이 기구는 해외 식민지와의 모든 교역에 관계된 업무를 관리하는 중심 기관이었다. 다미앙 드 고이스는 인디아 무역관을 가리켜 “인디아로부터 매년 유입되는 향료, 진주,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많은 귀금속들의 저장소”⁴³⁾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이곳은 동양 산물의 하역, 보관 그리고 판매와 인디아로 향하는 교역 대상물품의 관리와 발송등을 총관장하였으며 그밖에도 해외 식민지의 재외상관에 관리의 파견, 교역에 관계된 일반 규정의 공포와 특별한 개인의 사업면장도 허가하는 업무를 전담했다.

두 번째로, 東洋産物의 구매를 담당하는 동양 재외상관(feitoria do Oriente) 조직이 있었다. 재외상관은 葡王室이 직접 관장하였던 인디아 무역관의 대리점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시 후추와 향료의 교역은 많은 정책 조건의 변경으로 빈번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인디아 무역관의 관장이었던 조앙 드 바로스(João de Barros)는 동양에서 葡의 교역 활동에 있어 각기 다른 조직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로는, 정복에 의해 葡에게 주권이 양도된 지역들이 있었다. 고아, 말라카, 그리고 오르무즈 같은 이들 지역에서는 세관의 모든 권리가 통치권과 더불어 葡왕실에 있었다. 두번째로는 독립된 主權國家인 카나노르, 코칭, 실크랑, 샬야트(Chalyat) 그리고 세일랑(Ceilão)의 경우처럼 葡의 보호를 수락하거나 보호국이 되기를 간청했던 곳들로서 이들과는 국가간의 관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들과의 계약은 모든 상업적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모든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지만 향료의 계약만은 約定에 의해 가격이 고정되고 葡人들은 이들에게 정식으로 關稅를 지급해야만 했다. 세번째 부류는 비자이 아나가르와 수마트라와 소왕국들처럼 통치권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있고 葡는 단지 그 국가의 영토의 일부에 재외상관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들이었다.

세 번째로, 15C 말엽 브루게스(Bruges)에서 안투에르피아로 이전된 플랑드르의 재외상관(feitoria de Flandre)은 향료의 가장 큰 판매시장인 중북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葡의 최종 판매처였다. 호세 베이가 토레스(José Veiga Torres)는 “葡인들이 개설한 세계 경제의 수도인 리스본이 아닌 안투에르피아로서 이 곳이 베네치아를 제쳤다.”⁴⁴⁾는 표현으로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투에르피아는 지리적 위치에서 브루게스보다 유리했고 또한 중유럽과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43) Joaquim Veríssimo Serrão, *História de Portugal* [1495~1580], 3 edição (Lisboa: Editorial Verbo, 1980), p.98.

44) José Veiga Torres, *Introdução a História e Social da Europa* (Coimbra: Livraria Almedina, 1983), p.87.

아우스부르그의 金融商人들인 벨서家나 휘거家가 銅과 銀의 교역으로 번창했던 이 곳에는 1501년 인디아에서 직접 반입된 후추와 육두구가 도착한 것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인디아 무역관이 유럽시장 판매를 위한 후추를 공급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그런 이유로 1508년 동 마누엘은 이 곳에 플랑드르 재외상관을 設立하였는데 동양의 재외상관 조직이 香料의 구매를 위한 조직이었던 반면, 이 곳은 東洋産物의 販賣 및 香料購入을 위한 資金借款과 交易代償物의 구입을 위한 인디아 무역관의 지점이었다.

한편 葡왕실은 동양과의 독점 교역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다. 교역 대상물의 購賣代金, 선박의 건조 그리고 교역에 참여하는 인원의 보수 등에 지급되는 비용은 장기간의 부동성 자본이었고 이익의 창출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했다. 葡의 국내에는 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金融機關이 없었기 때문에 안투에르피아의 독일 金融商人들은 葡王室을 위한 차관자금 대여를 즉시불로 책임졌고, 그 댓가로 중북부 유럽의 향료의 분배와 재판매권을 독점했다.

이처럼 大金融商人들이 葡王室의 資金 調達을 장악하면서 葡의 支配權에서는 王의 독점물이었던 향료가 지배권 밖에서는 이들의 독점물로 변모했다. 당연히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인들을 분개시켰는데 1527년 에라스무스(Erasmo)가 동 조앙 3세에게 보낸 서한의 한 귀절이 이것을 잘 입증해 준다: “그토록 많은 양의 후추가 수입되는 利點에도 불구하고 대회사들의 독점으로 오히려 가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1549년 동 조앙 3세는 안투에르피아의 재외상관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독점교역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동양 산물의 반입이 증가된 반면 은을 비롯한 귀금속 수요의 증대, 차관자금의 누적과 높은 이자율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포왕실의 국고로는 상관의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史家들은 그 이유를 두 개의 새로운 사건에서 찾는다. 첫째, 1535년부터 獨의 은광산 쇠퇴와 함께 세빌라를 통해 신대륙의 銀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을 때, 葡는 자금의 조달처를 이 곳으로 전환시켰고, 둘째로, 1530~1540년에 베네치아의 레반트 交易路를 통해 良質의 후추가 공급되면서 포르투갈의 독점체제가 유럽 시장에서 통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2) 스페인 交易政策의 조직과 역할

이미 전술한 바처럼 스페인의 國王들은 16C 전반에 걸쳐 본국과 식민지 간의 交易에 대한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시했다. 초창기에 카톨릭왕들은 콜론을 동업자로 신대륙 交易를 통제하려 했지만 상업 유통체제가 미진함을 알자 1495년에는 交易權을 카스티야의 신민들에게 허용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득이 많은 交易代償物인

흑인노예, 水銀, 소금, 증서 용지, 후추, 화약, 역청 그리고 담배 등에는 왕실의 독점이 적용됐다.

이론상으로 王室의 독점은 스페인 國王의 독점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카스티야 왕실의 모든 신민들의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들 중의 소수인 세빌라의 특권 상인들인 까르가도레스 데 인디아스(Cargadores de Indias)들만이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독점의 수혜자들이었다. 그러나 카톨릭王들은 1503년 1월에 왕령으로 세빌라에 통상원(Casa da Contratación)을 설립하면서 자유로운 교역을 통제하고 교역 조직을 체계화해 나갔다. 뵈에르 레온(Pierre León)은 이 통상원이 1434년에 설립된 葡의 쎄우파 무역관의 변신인 인디아 무역관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⁴⁵⁾ 실제로 초창기의 이 조직은 단순한 교역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기구가 확장되면서 西의 大西洋橫斷 交易의 절대적 독점조직으로 변모했다.

부르느(Bourne)가 “세빌라 통상원을 설립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의 제 2 단계가 열렸다.”고 말할 정도로 큰 역할을 수행했던 이 기구는 1인의 의장, 출납 담당관, 회계 담당관 그리고 수화물 담당관으로 구성된 3인의 판정관(jueces oficiales), 3인의 청문관(oidores), 1인의 獄吏(alcaide), 1인의 執達吏 그리고 많은 하급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서는 크게 관리국과 재판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신대륙과의 교역과 왕실 국고의 관리 업무를 맡고 의장(presidente)과 판정관들의 소관이며, 후자는 청문관들의 직무로, 인디아스의 교역과 항해에 관련된 소송과 분쟁 사건을 관장 했다.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에 도착한 1524년은 인디아스 특별 위원회(Consejo especial de Indias)가 설립된 해였다. 이 위원회는 피르페스가 멕시코를 정복한 후 식민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실 최고 諮問委員會의 자치적 특권을 인정받고 통상원보다 上位機關으로서 후자의 불충분한 기능을 보강하고 신대륙에 관계된 정책의 최고 意決機構로서 등장했다.

인디아스 諮問委員會는 西왕실의 다른 많은 위원회들과 대등한 관계의 독립된 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카스티야 자문위원회가 스페인 국내에서 지냈던 것과 같은 특별한 권한을 신대륙에서 행사했다. 따라서 그들의 권한은 사법, 재정, 입법, 군사, 종교 그리고 상업상의 모든 면에 걸쳐 확산되었고 다른 국내의 관공서나 법률 기관은 이 기구의 문제에 관여하지 못했다.

한편 세빌라항에서는 소수의 부유한 상인들로 구성된 商人길드인 끈솔라도

45) C. Pérez-Bustamante, *Compendio de Historia de España*, Duodécima Edición (Madrid: Lope de Vega, 1969), p.382.

(Consulado)가 새로운 가입자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과점(oligopolio)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기구는 통상원과 세빌라 항구와 함께 신대륙 교역 통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비록 治外法權을 지닌 共同組織(organismos corporativos)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세빌라에 정착했다라도 外國商人들은 植民交易에는 단지 간접적인 형태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들 상인길드의 조직이 외국의 상인들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포르투갈이 동양에서 운영했던 재외상관의 역할에서처럼 신대륙의 交易據點으로 변모한 이들은 본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왕실의 힘으로는 통제가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국가와 민간 상인들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 결국 왕실은 상인길드에게 세금 징수나 정부의 관리적인 ڤ레히도르(Corregidor)나 알칼데 마요르(Alcalde Mayor)의 직책과 유사한 기능을 양여했다.⁴⁶⁾ 세빌라, 멕시코 그리고 리마市에서 이들이 식민지 교역의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주식회사의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통상원, 인디아스 諮問委員會 그리고 상인길드 ڤ콘솔라도와 더불어 스페인의 신대륙 交易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디아스 교역로(Carrera de Indias)로 불리는 대서양 橫斷交易體制일 것이다. 까를로스 1세는 재임 말기에 이 교역에서 외국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권한을 西人들로 한정시킨 뒤 왕실의 완전한 통제 하에서 정책을 실시했다. 따라서 이 交易體制의 성격, 운송 조직 그리고 유통 구조와 가격 체제를 알아보는 것은 왕실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초창기의 대서양 교역은 상선단만으로 실시됐으나 1521~1529년에 발로와 王朝(Valois)와 합스부르크 王家의 대립으로 프랑스 해적들의 위협이 증가되자 상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항시 유럽 영해에 접근했을 때 전함을 파견했다. 그리고 1526년 까를로스 1세는 해적의 적퇴를 위해서 상선단에게 무장을 갖추고 항해하도록 지시했으나 선원들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승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펠리페 2세의 통치기인 1561년에는 왕령으로 이후 약 200년간 지속된 호송 전함체제(El sistema de convoyes)가 설립됐다.

한편 함대가 도착하는 신대륙의 베라끄루스, 까르타헤나, 포르토펠로에는 큰 市場이 있었고 그 곳의 大商人들은 상품을 인수받아 베라끄루스에서는 멕시코의 부왕령에 공급했고, 까르타헤나는 누에바 그라나다의 全域에 공급했으며 포르토펠로부터

46) Stanley J. Stein e Barbara H. Stein, *A Herança Colonial da America Latina*, 3 edição (Rio de Janeiro: Paz e Terra), p.46.

는 갈레온船의 화물이 파나마지협을 통해 육로로 운송되어, 이 도시에서 리마로부터 남미의 각 지역에 분배되기 위해 칼라오(Callao) 港口까지 南部艦隊(Armada del Sur)에 의해 옮겨졌다.

실제로 인디아스의 植民人口의 증가와 경제적 성장은 유럽 商品의 막대한 수요를 창조했고, 대서양 橫斷交易의 점진적인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 증가 추세가 훨씬 더 크지 않았던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인디아스 교역로는 가장 위험한 장거리 항로로서 대서양의 폭풍, 카리브해의 허리케인의 위협으로 높은 난파율을 나타냈고 둘째, 장거리 항해에서 航海者들과 船主들의 욕심과 무모한 모험 뿐만 아니라, 출항시의 선적품인 밀, 올리브유, 포도주 그리고 각종 매뉴팩처 제품은 그 부피에 있어서 회항시의 선적물인 금, 은 그리고 열대 산물들에 비해 용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본국으로 향하는 선박보다 신대륙으로 떠나는 배의 숫자가 더 많았고, 심지어는 일부 선박들이 인디아스의 항구에서 선적물과 함께 팔리는 일도 생겼으며, 세제, 높은 가격, 과잉 수요, 그리고 부족한 공급 능력의 불합리한 교역 구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해적의 위협에 대비한 호송함대 제도의 엄청난 비용, 대부분 선적물의 가격에 비례하여 상인들이 支給했던 아베리아(avería)라 부르는 군사 방어비, 빈번한 난파로 인한 손실 등의 요인들이 운송비를 상승시켰고, 초기에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던 交易에 관한 면세제도의 철회와 1543년부터 시작된 관세의 인상으로 교역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葡의 경우처럼 안투에르피아의 金融市場에 의존하는 바가 컸던 스페인 王室은 20%의 높은 利子率로 借款을 얻어서 이 부담스러운 交易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기야는 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銀을 유출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안투에르피아는 아메리카產 銀의 흡수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3. 交易政策의 目標 및 性格

1) 포르투갈의 香料交易獨占政策

인도 航路의 발견 후 리스본에 귀환한 다 가마는 특별수당으로 동 마누엘王에게서 후추 10견말(quintal)⁴⁷⁾과 같은 양의 다른 香料를 받았고, 죽은 동생 파울로(Paulo)의 상속자들도 5견말의 후추를, 니콜라우 코엘류(Nicolau Coelho) 선장도 1견말, 그리고 다른 선원들도 마싸스(maças)와 계피를 제외한 각종 향료 10아라텔(arratel: 450g)을 받았다.

東洋產 香料들, 사실 오늘날 그다지 큰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언제부

47) 1견말은 약 220파운드의 무게

터 무슨 이유로 유럽 市場을 주도하는 交易物로 각광을 받고 重商主義帝國 포르투갈을 16C 최대의 富國으로 부상시켰을까?

많은 史家들은 항해왕자 엔리크가 기네의 金과 동아프리카의 아비씨니아(Abyssinia)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프레스트 조앙의 基督教王國을 발견하고자 했던 목적 외에도,兄인 동 빼드로 王이 베네치아에서 구해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香料의 나라 인디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香料는 이미 마르코 폴로의 시대부터 흑해와 레바논 近海까지 육로로 서남아시아를 통과하여 隊商들이 운반해 왔으나 1400년 경부터는 아랍商人들과 인도인들이 紅海의 港口들로 海上運送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중해까지 陸路運送되면, 베네치아와 제노바 商人들이 구매하여 유럽 市場에서 판매하고 있었다.⁴⁸⁾ 그 당시 유럽에 유입된 향료는 주로 후추, 丁香, 계피, 육두구, 새양, 마싸 등이었는데 후추는 화폐로 이용될 만큼 가치가 있었고 인도에서 1칸달에 2프루자도의 후추가 베네치아 商人들에 의해 유럽에서 80프루자도에 판매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

향료들 중 후추는 대량 교역이 가능했고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었다. 후추는 둥근 후추(pimenta redonda)와 긴 후추(pimenta longa)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유럽인들의 관심은 전자로서 값도 훨씬 비싸서 14C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거래된 긴 후추가 5베산페(besante)였을 때 둥근 후추는 100~120 베산페였다.

새양(Gengibre)은 후추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서 주요 교역 품은 아니었다. 가장 큰 생산지는 말라바르 해안지대로서 깔리꾸뜨產이 품질면에서 으뜸이었다. 1512~1515년에 토메 뻬레스(Tomé Pires)는 말라바르의 총생산량을 2,000칸달로 추정했으며 인디아 全域의 生産量은 6천 칸달 정도임을 보고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급격한 수요 증대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1512년 알부케르꾸 총독은 “저희가 구매하려 하는 새양의 경작자들에게 생산을 증대하려는 각성이 일어나서 원했던 양보다 곱절이 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계피(Canela)는 정향과 마싸⁴⁹⁾와 함께 고급 향신료로 구분되었던 향료로서 이 3품목은 카이로 市場에서 가격이 동일 수준이었으며 양의 단위도 쉐뚜(Cento)나 칸타로(Cantaro)를 사용했다. 프란시스코 알바레스(Francisco Álvares)의 고증에 의하면 원정대의 일원인 표빌라의 주된 사명에는 이 계피의 產地를 찾는 역할이 있었으며, 다 가마의 일행이었던 가스파르(Gaspar)의 보고서에 의하면 양질의 계피의 판매지는 말라바르 해안이었으며 주요 산지는 쉐일랑임이 밝혀진다.

48) David Arnold, *op. cit.*, p.22.

49) 육두구의 겉 껍질을 벗겨 만든 향신료.

말레이시아의 商人들은 “神계서는 티모르(Timor)의 백단향, 반당(Bandam)의 마싸스, 말루코(Maluco) 제도의 정향을 창조하셨고, 이것은 오직 이들 지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⁵⁰⁾고 말할 정도로 정향 역시 귀한 향료였다. 정향은 몰루카스 群島의 5개의 작은 화산섬에서 생산되었는데 또메 베레스의 조사에 의하면 그 양은 1512~1515년에 6천 바하레스(bahares) 즉 24,500 킨말이었다.

한편 마싸의 경우 반다(Banda)에서 1512~1515년에 500~600 바하레스가 생산되었고 육두구(noz-muscada)는 6,000~7,000 바하레스가 생산되었는데 이를 킨말로 환산하면 전자는 2,040~2,450킨말, 후자는 24,500~28,600킨말로서 가격은 마싸 1킨말이 육두구 7킨말에 해당되었으며 반다섬의 주민들은 마싸의 판매시에 반드시 육두구를 끼워서 판매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향료의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동양의 모든 香料는 한정된 생산지에서 3개의 주요한 중개시장인 말라카, 깔리꾸뜨 그리고 오르무즈를 통해서 주변의 산재된 소비지로 이동했다. 당시 향료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과 베네치아의 사이에 끼어든 포르투갈은 우선 香料去來市場의 확보에 나섰다. 葡人들과의 交易를 거부하고 적대감을 표시했던 깔리꾸뜨의 사모링王 때문에 행운을 얻은 곳은 말라바르의 소왕국들인 코칭, 가나노르 그리고 꼬울랑이었다. 당시 꼬울랑은 사양길에 접어든 港口都市였고, 가나노르도 새앙만을 취급하는 빈약한 교역국이었으며 코칭 역시도 소량의 후추가 거래될 뿐이었다. 그러나 葡의 동양제국은 이 세 곳에 재외상관을 설치하고 사모링王의 군사력을 분쇄하는 한편 메카(Meca)의 아랍 商人들의 경쟁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리하여 복서(Boxer)가 “인도洋, 자바海, 그리고 동지나海 사이의 좁은 목부분을 통제하는 중요한 海軍基地”⁵¹⁾라 칭찬했던 말라카가 1511년에 알부케르크 총독에 의해 정복되고 1515년에는 역시 그루스(Cruz)가 “끊임없이 흐르는 銀의 管”이라 칭했던 오르무즈(Ormuz)의 정복도 실현되었다. 또한 포왕실은 이들 지역의 보호와 紅海交易路를 봉쇄하기 위해 1502년부터는 함대를 印度海域에 상주시켰고 아랍 商人들의 활동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쉐일랑과 말라카에서 깔리꾸뜨로 향하는 交易船들의 航路를 코칭, 가나노르 그리고 꼬울랑으로 조정하는 한편 직접 향료의 產地를 찾아 나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10년 정도가 지나자 마침내 포르투갈은 아시아 향료의 流通體

50) Vitorino Magalhães Godinho, *os Descobrimentos e a Economia Mundial*, Vol. III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82), p. 194.

51) Jaime Cortesões, *a Expansão dos Portugueses na História da Civilização* (Lisboa: Horizonte, 1983), p. 115.

제를 완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제교역에 사용된 去來方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1500년의 2차 원정대의 총사령관 까브랄(Cabral)은 협상을 통해 갈리구즈에도 香料交易代償物로 銅, 납, 銀, 산호, 명반 그리고 아싸프랑(açafrão)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가격표를 가지고 귀환했으며, 1501년의 제 3 차 원정대의 조앙 드 노바 사령관은 코칭의 市場이 매우 빈궁하여 現金去來와 즉시불을 요구했고, 까나노르에서는 의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상환은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원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16C 중엽까지 葡王室의 나우船들의 인도행 선적물은 초기의 10년간은 매년 銅 4,000견말, 그 이후는 6,000견말의 銅, 산호, 朱色顔料, 水銀, 납, 주석 그리고 옷감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⁵²⁾

이와 같이 구입된 향료는 리스본으로 향했다. 원래 리스본에서 후추를 비롯한 향료의 판매는 모든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지만, 1503년부터 모든 동양의 산물들은 인디아 무역관의 중개로 판매되었고, 1530년 왕실은 이 곳만이 1견말 이상의 향료를 도매로 판매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후추의 유럽내 販賣價格을 보면, 인도에서 선적시 1견말에 평균 3꺠루자도로 평가하더라도 運送經費, 관리 및 보관비, 선박의 손실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면 리스본항 入港時 17꺠루자도로 가격이 오르고, 최종적으로 인디아 무역관에서 33꺠루자도의 都賣價格으로 유럽 각지에 판매되었다.⁵³⁾

이상과 같은 향료의 교역은 葡왕실의 獨占事業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후추, 정향, 계피, 육두구, 새양 그리고 마싸를 구입할 때는 인디아 무역관을 통해서 5%의 독점세를 지급해야만 했다. 그러나 葡王室은 이 거대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었다.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의 金融巨商들인 휘거家, 벨서家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했으며 그 댓가로 중북부 유럽의 향료 공급권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香料의 交易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략 89%의 純利益을 왕실에게 제공하는 매력적인 사업이었지만, 최초의 교역으로부터 25년이 지난 1524년에 이미 葡왕실은 金融商人들에게 약 3百萬 꺠루자도의 負債를 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략 3년간의 동양 향료 반입량의 가격 총액과 비슷한 액수였다.

이 때부터 왕실은 더욱 더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부득이 부족한 자금을 국내에서 債權發行으로 조달했는데 1528년부터는 이자율을 비교적 낮은 연 6.25%로 고정시키고 여기서 모집된 國內資金으로 연 25%의 借款金 利子を 支給했다.⁵⁴⁾

52) Vitorino Magalhães Godinho, *op. cit.*, p.9.

53) José Hermano Saraiva, *História concisa de Portugal* 5 edição (Mem Martins: Publicações Europa-América, 1979), p.186.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葡王室은 1506년부터 獨占事業으로 운영해 왔던 香料交易을 1570년부터는 自由交易으로 전환하면서 사양길에 들어서게 된다.

2) 스페인의 金, 銀 交易獨占政策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신대륙 교역의 규정은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이 행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발렌틴 바스케스(Valentín Vázquez)는 그러한 차이가 두가지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葡人들이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단지 제외상관을 설립하고 지배지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데만 만족하면서 帝國의 영토 확장이나 植民化에 몰두하지 않았던 反面에, 스페인人들은 新大陸에서 그들의 經濟構造에서 반향된 밀도있는 식민사업을 실현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신대륙 교역에 간접적으로 외국의 商人들이 개입했을 때도, 그들의 規定은 그것이 직접 스페인 王室의 財源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스페인의 交易獨占體制는 절대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차원에서 국가의 통제하에서 운영되었다.

스페인 왕실은 拜金主義思想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1492년 안미야스 諸島의 발견 이후부터 金을 주된 목표로 삼았고 성 도밍고스나 푸에르토 리코의 많은 金을 유럽에 유입시켰으며 그 生産量이 저하되자 정복자들의 끈질긴 대륙 침투로 16C의 세계 경제순환에 金과 銀을 매개체로 하여 신대륙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세빌라에 유입된 金의 양에 관한 연구는 1934년에 해밀톤(Earl, J.H. Hamilton)이 발표한 『아메리카의 보물 *American Treasure*』에서 비교적 명백히 규명된다. 金의 첫 주기는 서인도 諸島에서 이루어졌는데 해밀톤은 1503~1510년에 세빌라에 약 5t, 1511~1520년에는 약 9t 이상의 金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는 채집의 단계로서 기술적 방법에 의한 생산이 아닌 인디오의 장신구로 사용되었던 金의 약탈기라 할 수 있었다. 인디오가 천 년간 생산한 金이 스페인 征服者들의 2~3년간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갈되자, 인디오들의 원시적 생산 기술을 동원한 砂金採取의 이동식 생산 단계가 시행되었다. 프레드릭 마우로(Frederic Mauro)가 브라질 사탕수수 경작에서 증명한 바처럼 식민지의 모든 생산 분야는 본국을 크게 만족시킬 만큼 큰 이익을 창조하지 못했지만 광물만큼은 예외였다.⁵⁶⁾

첫 주기의 하양 국면에 스페인人들은 金을 찾아 대륙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이리

54) *Ibid.*, p.187.

55) Valentín Vázquez de Prada, *História Económica Mundial*, Vol. I (Porto: Livraria Civilização Editora, 1986), p.264.

56) Pierre Chaunu, *Conquista e Exploração dos Novos Mundos* (São Paulo: Livraria Pioneira Editora, 1984), p.322.

〈表 1〉⁵⁷⁾

년도(anos)	金(무게 : Kgs)	銀(무게 : Kgs)
1503~1510	4,965	0
1511~1520	9,153	0
1521~1530	4,889	148
1531~1540	14,466	86,193
1541~1550	24,957	177,573
1551~1560	42,620	303,121
1561~1570	11,530	942,858
1571~1580	9,429	1,118,592
1581~1590	12,101	2,103,027
1591~1600	19,451	2,707,626

하여 제 2 주기는 대륙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도 인디오의 착취가 생산의 한 方法이었지만 高原地帶의 원주민들의 생산 기술에 의한 채광도 행해졌고 1520년대 말부터는 金과 銀의 생산이 병존하기 시작했다. 위의 도표는 1503~1600년까지의 金과 銀의 생산량을 4기간으로 구분한 것이다.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 1 주기는 金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제 2 주기는 은의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金이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고 量도 72~78% 증가했으며, 銀도 102~70% 증가했다. 제 3 기간인 1561~1580년은 金生産의 하락과 銀生産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 마지막 기간은 銀의 완벽한 우위가 입증되는 최고의 전성기로서 지난 20년보다 무려 2배 반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金과 銀은 적은 量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원거리 운송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었고, 더우기 상업 자본주의의 완벽한 발전과 일반적인 경제적 팽창의 국면에 있었던 유럽에서는 貨幣經濟의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신대륙의 은광은 초기에 막대한 제련 경비가 지출됐다. 채광을 촉진하기 위해 왕실은 재정복사의 관례에 따라 민간인에게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수입의 20%를 차지했다. 초기에 제련술은 용광로에 광석을 넣고 산화 처리하는 방법으로 은을 추출했으나 이 공정에는 엄청난 연료가 소모되었고 큰 문제점은 황량한 高原地帶에서 연료의 조달과 운송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1554년 누에바 에스파냐에 정착한 독일인 기술자 가스파르 로흐만(Gaspar Lohman)과 바르톨로메 메디나(Bartolomé Medina)가 아말감(amalgama) 공정의 冶金術을 도입하여 이

57) José Veiga Torres, *op. cit.*, p. 100.

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자 1555~1565년에는 멕시코 全域에 확산되었고 이 곳은 한 때 페루를 앞섰으며 1573년부터는 페루도 이 방법을 도입했다.

水銀의 주요 공급처는 독일인들이 개발한 까스티야의 알마덴(Almadén)으로서 1516~1660년 사이에 연평균 148,500kg이 신대륙에 공급됐고, 부족한 공급량은 가끔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 王家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의 이드리아(Idria) 鑛山地域에서 보충했다. 그러나 1563년 페루의 후안카벨리카(Huancavelica)에서 南美 最大の 水銀鑛山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스페인 광산업자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지만 페루의 인디오에게는 큰 불행이었다. 인디오의 노동력이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金과 銀鑛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했다. 까스티야의 法에 의해 國王의 영토인 신대륙의 鑛山은 당연히 國王의 소유였다. 1501년 카톨릭王들은 허가없이 그 누구에게도 광산 채굴을 금지했고, 허가를 맡은 사람도 治金과 稅金을 징수하는 王室의 鑄物工場(Casa de fundición)으로 산출된 양 전부를 운반하도록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⁵⁸⁾ 아울러 왕실은 항상 개발된 광산의 특권에 대한 큰 로얄티를 요구했고 이것은 신대륙 支配의 末期까지 지속되었다.

1504년의 한 法令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鑛山業은 여전히 王室의 권리 불하로 인정되었다. 一般規定에 의하면 만일 한 광산업자가 타인의 소유지에서 광산을 발견하면 그 일부는 법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가 주어졌고, 植民時代에 공유지와 사유지의 보다 정확한 구분이 이룩되었을 때도, 민간인이 공유지에서 발견한 광산은 일정한 면적이 왕실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귀금속 밀매가 성행하고 또한 경화의 수출로 상쇄되었던 경제의 적자운영으로 스페인은 포르투갈의 경우에서처럼 신대륙 귀금속을 운송해와 유럽 각지에 분배하는 역할의 수행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까스티야는 스페인 귀금속 독점정책의 한계를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다:

“1550년부터 서유럽 국가들은 모두가 스페인 領 아메리카 식민지의 本國이었다.”⁵⁹⁾

V. 植民帝國政策의 결과와 새로운 문제점

1. 葡와 西의 植民帝國政策의 결과

東洋帝國 인디아國과 西領 아메리카 帝國의 쇠퇴와 변화는 植民本國들의 정세에

58) C.H. Haring, *op. cit.*, p. 258.

59) Guillermo Céspedes del Castillo, *op. cit.*, p. 132.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한 쇠퇴와 변화가 本國 정세의 악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따라서 兩國植民政策의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植民本國의 내적 상황과 植民地의 외적 상황 변화의 相關關係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본 절에서는 16C 末 포르투갈이 스페인 王室과 王朝統合을 이루게 된 배경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이와 연관된 東洋帝國의 소멸 과정을 밝히며, 스페인의 경우는 17C의 스페인 帝國 몰락과 이와 연관된 신대륙 귀금속 交易政策의 쇠퇴와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포르투갈의 王朝統合과 인디아國 소멸

16C에 葡와 西는 植民帝國政策으로 치열한 경쟁의 국면에 있었지만 王家의 유대와 결속은 매우 긴밀한 편이었다.

16C 중엽부터 葡에서는 빈번한 王家간의 혼사로 이베리아 반도의 공통 염원이었던 王朝統合을 추진하려는 무리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도는 이미 1474~1479, 1496~1500년에도 있었던 현상이었다.

1557년 동 조양 3세의 서거 후 카스티야인이며 까를로스 1세의 딸인 도냐 까탈리나는 쾰바스띠앙이 14세의 成人이 될 때까지 攝政職을 맡아 카스티야와 정치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쾰바스띠앙은 포르투갈이 위협받는 그리스도교 정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며 그 주역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先王인 동 조양 3세가 아폰소 5세와 마누엘의 통치기에 장악했던 아프리카 정복지 일부를 포기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1578년 알까세르 끼비르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葡軍은 대패했고 왕 자신도 전사했으며 이 전투의 결과로 葡는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獨立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었다.

한편 계승자가 된 동 엔리끄(D. Henrique) 추기경은 쾰바스띠앙의 작은 할아버지로서 노력으로 인해 불안하고 미온적인 정책으로 동 마누엘의 손자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왕위 후보 등장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펠리페 2세는 반도 통일의 과업을 성취했고 1581년 葡에 와서 토마르(Tomar) 宮廷會議를 개최하여 펠리페 1세의 칭호로 포르투갈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른바 葡와 西의 二元王政(Monarquía dualista)이 成立하게 된 것이다.

펠리페 2세는 葡의 상류층에게 만족스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에 섰으며 통치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의 自治權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귀족, 성직자, 군인 그리고 중산 부르주아 계층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다는 낮은 감정을 전혀 갖지 않았다.

따라서 王朝統合으로 사양길에 들었던 포르투갈 帝國의 중상주의적 식민정책의 활

성화가 예견되었다. 그러나 올리베이라 마르케스(Oliveira Marqués)는 이와 같은 통합의 경제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두 王朝의 統合과 함께 포르투갈 帝國과 그 經濟組織은 스페인 帝國의 보완물이 되었다. 인디아와 극동과의 교역은 유럽이 이미 공급능력을 상실한 엄청난 양의 銀을 흡수했다. 고로 葡는 식민지에서 번영일로에 있었던 스페인 銀의 생산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안투에르피아보다 세빌라는 자국 경제의 필요성 때문에 葡人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멕시코와 중국 간의 교역은 포르투갈이 西領 아메리카 내에서 교역과 접근의 자유를 이루지 못했던 이유로 극동에서 葡의 獨占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葡와 西의 직접적인 경제관계는 상호의존적으로 변모했다. 葡의 商人들과 船舶은 스페인과 유럽의 타 국가들 간의 중개인으로 봉사했고, 스페인의 商人들과 資本家들은 葡의 交易의 일부를 통제했으며 왕실에 의해 시행되는 교역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 거의 매년 카스티야의 밀 공급을 필요로 했던 葡人들에게는 국경에서의 관세의 전면 혹은 부분적 철폐가 꿈이었다. 兩國人들은 佛, 和 그리고 英의 공동의 적이 되어 교역의 방어에 힘썼다.”⁶⁰⁾

포르투갈 東洋帝國의 위기는 유럽 내의 전쟁에 종주국 스페인이 휘말리면서 고조되었다. 따라서 인디아와의 交易은 많은 수난 속에서 행해졌다. 葡人들의 통제에 있었던 설탕, 담배 그리고 노예 교역은 佛, 英 그리고 和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침해되었으며, 멕시코와 페루에 정착한 葡人들은 猶太主義를 핑계로 1620~1630년대에 심한 박해를 당했다. 이로써 1580년의 王朝統合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은 점차 불리하게 변해 갔다.

1580년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二元王政(Monarquía dualista)은 東洋帝國 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펠리페 2세는 그의 제국으로부터 포르투갈의 이익을 분리하겠다고 표명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이 設立한 포르투갈 財務委員會, 副王制 마야돌리드의 포르투갈 諮問委員會(Consejo de Portugal)의 세 기구에게 동양제국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⁶¹⁾ 그러나 이미 급속히 신장된 레반트 交易과 함께 和와 英이 희망봉 우회 교역로에 등장하면서 葡의 동양제국은 커다란 곤경에 처했다. 따라서 葡王室은 고아와 리스본, 리스본과 유럽 시장에서 자력으로 교역을 행하기가 힘들었고 북유럽과의 교역에서도 축출당했으며, 휘저家, 벨서家 그리고 그들의 공동 협력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완전히 실패했다. 인디아國 영내에서도 외국인들의 개입금지

60) A.H. de Oliveira Marqués, *op. cit.*, pp.415-416.

61) R.B. Wernham,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533.

조치는 취소됐고, 副王과 관리들은 사쎄띠와 크론(kron) 같은 인디아 계약 대리인들이 고아와 후추 港口에 정착하여 구매 작업을 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상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英, 佛 그리고 和의 민간 무장선들의 공격에 대항하며 대서양 交易路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동양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향료교역의 독점권을 지탱해 나가는 정책도 실패하자 葡왕실의 수입은 점차 감소되었다. 본국에서 공급되는 군사력과 함대로는 수많은 요새, 재외상관, 그리고 항로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당시 葡의 주요 기지였던 모잠비크, 오르무즈, 디우 그리고 말라카의 주둔병은 불과 백여 명 남짓이었고 세일랑을 점령할 때도 천 명 미만의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여기에는 각 지역에서 선발된 용병들인 인도인 혼혈, 아프리카 노예, 말레이와 일본인, 코칭과 띠도레(Tidore) 같은 동맹국 병사들 그리고 지역 방어를 위해 소환할 수 있는 葡人 정착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디아國의 방어는 결코 완벽할 수 없었다.

재정적인 면에서 인디아國은 이미 王室의 무관심으로 독립된 자급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다. 따라서 관리들과 성직자와 군인들의 녹봉, 함대와 요새의 유지비 그리고 宣敎活動 지원금을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했다. 帝國의 수익은 그 일부가 교회의 부속농장과 정착민들에게서 징수되는 세금과 총수입의 2/3를 차지했던 관세 수입이었다.⁶²⁾

16C 末부터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군사적 위협이 가중됐다. 1572년 大무갈의 皇帝 아크바르(Akbar)가 구아자라트를 정복하면서 葡의 지배권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비자이아나가르의 힌두帝國이 데칸(Deccan)의 무슬림 술탄에게 정복되면서 포르투갈 지배권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말라바르 해안의 후추와 새앙의 生産國에서도 葡의 地域司令官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토후국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났고 양세력 간의 갈등은 1599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7C를 맞아 和와 英의 동양 진출은 더욱 강화되고 葡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고딘뉴 신부(Padre Manuel Godinho)는 17C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600년대부터 우리 국가의 사양화가 명백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 때부터 우리는 힘을 상실하고 허약해져 갔다.…… 갑자기 이전에 바다를 정복했던 艦隊, 軍人들의 무용, 船長들의 빈틈없는 행동, 교역사업을 통한 재산 축적, 무기의 힘에 의한 成功의 기대가 사라져 버렸다. 세일랑의 향기로운 계피도, 말루코(Maluco)의 丁香도, 아라비아 쏘도, 아셈(Achém)의 安息香도, 중국의 사향도, 말라디바스(Maladivas)의 龍涎香의 냄새도 사라진지 오래였다…… 선장

62) R.B. Wernham, *op. cit.*, p.538.

들은 드높은 명성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했고, 그들의 부하들도 전쟁을 즐기지 못했으며 그들의 예속자들도 악화된 상황에서 달갑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和蘭은 일 세기 반 동안 수많은 인력과 군사력을 댄가로 쌓아올린 葡의 인디아帝國 위에 또 다른 유럽의 식민 제국을 창조했다. 복서는 이 모든 것은 “和人들의 해군력(poder marítimo), 우수한 人的 資源(recursos humanos superiores) 그리고 경제적 수단(medios económicos)에 기인한 것이다”⁶³⁾라고 단언한다.

결국 리스본 정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 선택은 브라질과 아프리카에 남은 식민지를 확고히 지배하기 위해 아시아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2) 스페인帝國의 몰락과 西領 아메리카 帝國의 변화

17C의 스페인 帝國의 몰락은 스페인 역사의 다른 기간들에 비해 연구가 미진하다. 그 이유는 18C에 시작된 부르봉 王家의 절대군주 체제의 확립과 왕위계승 전쟁, 경제 발전의 회복과 知的 改革의 시대에 비해 관심이 크게 집중되지 않았던 데도 있지만 영광스러웠던 15C 末~16C의 전성기에 대한 고통스러운 반동의 기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17C 初에 스페인은 제국 정책의 실패로 그들이 분명히 쇠퇴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7C의 몰락은 스페인 帝國의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몰락의 현상은 人口에서 잘 나타난다. 16C 末에 西는 葡를 포함하여 850萬의 人口였지만 1596~1602년, 1647~1657년에 카스티야와 반도의 동부와 남부에서 만연된 페스트의 피해로 17C 전반에 걸쳐 약 125만 명이 사망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미묘한 國際關係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첫째, 스페인 植民帝國의 광대한 領土와 엄청난 富는 유럽 경쟁국들의 주요 목표물이 됐고, 둘째, 불란서의 입장에서 스페인 帝國의 팽창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었으며, 세째, 스페인 帝國의 소유지가 화란과 프렌치 콩테(French Comté)에서처럼 본국과 고립되어 있어서 방어에 불편이 많았고, 네째, 스페인 帝國이 홀랜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7C 初에 유럽에서 스페인 帝國은 수많은 세력들과 육, 해상에서 무익하고 낭비적인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기 현상은 확연히 나타났다. 하이에 비센스 비베스(Jaime Vicens Vives)는 17C의 경제적 쇠퇴의 원인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1) 貴施과 敎會가 주도하는 세습 사유지의 끊임없는 확산 2) 사회적인 분열과 유랑

63) Joaquim Veríssimo Serrão, *História de Portugal [1640~1750]*, 2 edição (Lisboa: Editorial Verbo, 1982), p.104.

자의 증가 3) 농업과 목축업 간의 알력과 농업의 전통적 후진성 4) 8개의 대주교 관구와 52개의 주교좌에 배속된 7萬 여명의 聖職者와 修道會의 修道士를 합한 13萬 5千여명에 달하는 많은 교역자의 수 5) 사회의 지도계층인 119명의 大公, 535명의 작위 귀족 그리고 50萬명에 달하는 이달고(Hidalgo)의 특권 남용, 6) 인플레와 디플레를 야기시킨 카스티야의 무거운 세금정책 7) 貧者에 대한 박애 지향의 종교적 태도가 그것들이었다.

이로써 스페인의 貿易收支均衡은 17C 후반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지만 신대륙에서 수입된 銀을 재수출하면서 赤字財政을 메꾸어 나갔다. 그러나 銀 생산량의 감소로 국내 경제의 위기를 해소시킬 만큼 충분한 양이 유입되지 못하자 결국은 스페인 제국의 거의 모든 사회 계층의 빈곤과 기근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16C 동안 스페인과 西領 아메리카 帝國을 통치한 카를로스 1세와 펠리페 2세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절대 군주였던 반면에 17C의 諸王들은 모두가 무능하고 통치에 무관심하였으며 악화된 재정 상태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내적 상황은 植民地의 情勢에도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쇠퇴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된 것은 역시 人口問題였다. 사실상 新大陸에서 성취된 스페인 帝國의 富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희생을 댓가로 얻어진 것이었다. 이들 原住民은 1520~1530年代에 안티야스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소멸됐고,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신대륙의 인구 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니콜라스 산체스 알보르노스(Nicolás Sánchez Albornoz)는 천연두, 홍역 그리고 흑사병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하라미요 우리베(Jaramillo Uribe)는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은 십리,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원주민 출생률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17C 初에 누에바 그라나다에서 확인했고, 이미 1514년에 동일한 현상을 곤살레스 이 메야페(González y Mellafe)는 성 도밍고스에서 관찰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테인(Stanley J. Stein) 부부가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의 유산 *a Heranca Colonial da America Latina*』에서 지적한 바처럼 신대륙의 광산 활동의 번영과 직결된다. 즉, 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엔코미엔다나 미따制度 같은 가혹한 勞動力 搾取의 방법으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초기의 특색이며 오늘날까지도 그 유산이 남아 있는 광산업은 그 성공의 관건이 이처럼 原住民 勞動力의 확보 능력과 농업 인구의 흡수에 있었다. 따라서 광산 기업의 성공은 수없이 많은 원주민의 희생으로 얻어졌고 정복

이전에 존재했던 농업 구조를 파괴했다.

17C의 은광 산업의 사양화는 金平稅에 원인이 있었다. 멕시코에서는 1548년부터 광산주들의 요청으로 이 세금이 $\frac{1}{5}$ 에서 $\frac{1}{10}$ 稅로 조정되었고, 자카페카스에서도 1559~1626년에 $\frac{1}{4}$ ~ $\frac{1}{7}$ 에서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포토시에서는 16~17C 전기간을 통해 $\frac{1}{5}$ 세가 꾸준히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광산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됐으며 결국 1736년에 생산량의 감소와 더불어 $\frac{1}{10}$ 로 조정되었다.

17C의 은생산량은 해밀톤과 샤우누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해밀톤은 세빌라에 등록된 은괴의 수입은 1550年代에 절정에 달했고 1580~1630년 역시 호황기였으며 이후에는 심한 불황을 거쳐 1650年代에는 1C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히며, 샤우누가 작성한 대서양 수출입 교역 곡선도는 생산량의 절정기와 불황기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존 린치(John Lynch)는 이베리아 반도와 식민지에 영향을 끼친 위기에 대해 “스페인의 불황은 아메리카의 成長이었다.”⁶⁴⁾고 하면서 대서양 횡단 교역의 쇠퇴는 식민지에 내재했던 不況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식민지 각 지역 간에는 産業發展과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견해를 펴다.

17C의 위기에도 멕시코와 페루의 광산들은 꾸준히 은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부터 식민지에 더 많이 머물렀고, 상당량은 갈레온船에 실려 동양으로 보내졌다.

한편 대규모의 목축업은 17C에 사양화되는 광산 인구의 경제적 대응책으로 등장했고 농장 역시도 광산 인구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여 미개간지를 개발해 나갔다. 16C 말 성 도밍고스에서 1萬의 人口가 80萬 頭の 소를 사육했던 것은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농업과 목축업으로의 전환은 광산업자들의 검약 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들의 관심은 본국인 스페인 남부의 특징이었던 大土地所有制를 신대륙에서 再創造하는 데 집중됐다. 그러나 이 과정이 원주민들의 文化 中心地, 경작지 그리고 원주민 인구를 파멸시키면서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마르케스 데 바리나스(Marques de Varinas)는 신대륙 경영의 실패와 이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디아스와 교역이 부재한 스페인은 그 위대함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 없다. 왜냐하면 國王도, 제상들도, 민간인들도 그리고 엔코미엔다나 대토지의 소유자들도 銀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 만일 우리가 인디아스를 잃는다

64) Peter J. Bakewell, *Reading in Latin American History*, Vol. I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p. 156.

면 王國은 소득원을 잃는다. 따라서 國王은 어떤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⁶⁵⁾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말처럼 스페인 왕실은 17C의 本國의 몰락과 植民地의 쇠퇴를 一新하려는 의도로 과감한 경제개혁과 행정개혁을 추구해 나갔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고조된 植民地의 구조적 모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유럽 膨脹의 결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유럽에서 전개된 모든 중요하고 큰 사건들 중 海外膨脹政策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폭동, 민족 국가의 부상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같은 16C의 다른 역사적 상황들보다 이해나 연구의 면에 있어서 비중이 적게 평가되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하고 이어서 유럽의 列強이 참여한 팽창주의를 통한 植民政策의 결과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는 지극히 포착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물론 유럽의 경제발전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모두가 결과로서 간주되는 것은 큰 잘못이겠지만 클로우(S.B. Clough)나 램(Richard T. Rapp)을 비롯한 經濟史家들의 일반적 분석을 따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팽창정책은 유럽의 經濟成長에 확실한 충동을 주었다. 즉, 海外植民地는 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상품들의 광대한 市場이 됐고 원료의 공급으로 본국의 産業發展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포스트레스웨이트(Postlethwayt)가 말하는 식민지의 임무에서처럼 식민지는 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요인을 창조⁶⁶⁾해야 했는데 그것을 이룩한 葡와 西는 植民地 發見과 産業革命의 역사적 대사건 사이에 유럽 사회에서 발전되었던 경제 정책과 일단의 經濟理論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유럽 사회를 신속하고 격렬한 발전으로 유도한 이른바 商業革命(Commercial Revolution)의 가장 강력한 요인을 마련해 주었다.

둘째, 유럽의 팽창정책은 金과 銀같은 귀금속의 수입으로 이에 기반을 둔 商品의 價格을 엄청나게 상승시켰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도 했지만 長期契約을 맺고 그 의무가 화폐로 고착되었던 농민들과 領主들 간에 사회

65) Stanley J. Stein, *Herança Colonial da America Latina* (São Paulo: Paz e Terra, 1983), p. 42.

66) Fernando A. Novais, *Estrutura e Dinâmica do Antigo Sistema Comercial*, 3 edição (São Paulo: Editora Brasiliense S.A., 1977), p. 16.

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켜 유럽의 전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세째, 유럽 경제의 중심권이 地中海에서 大西洋으로 옮겨갔다. 즉, 葡와 西가 1500~1600年代에 獨占交易으로 벌어들인 富가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의 교역에 필요한 交易代償物의 구입 비용으로 유럽의 타 국가들에 이전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의 상업적 팽창에 대한 관념이 신다. 이로써 유럽 경제의 중심권은 지브롤터(Gibraltar) 해협을 마주한 스페인의 세빌라, 카디스로부터 獨의 함부르크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동해안을 포함한 대서양 해안을 따라 옮겨 갔다. 이곳에 해의 영토의 발견, 정복 그리고 교역으로 부흥한 국가들이 있었고, 교역을 위한 대상을 구입에 앞장섰던 상인들이 있었으며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大西洋橫斷의 航路를 향하는 항구들이 집결하여 있었다. 메주(Teju)江 하구의 리스본港이 1540年代를 정점으로, 안두에르피아가 1560年代를 정점으로, 최대의 항구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뒤이어 카디스, 보르도(Bordeaux), 로웬(Rouen), 암스테르담, 브리스톨(Bristol) 그리고 런던이 급상승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였다.

네째, 植民主義政策은 기업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규모의 해외 사업은 종전의 제도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중세의 교역과는 다른 규모의 기업이 창건됐다. 종전의 포르투갈이 왕실의 독점으로, 스페인이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혼합 제도로 실시했던 교역은 英, 和 그리고 佛에 의해 새롭게 변모했다. 이들 3국에서 王家의 역할은 매우 작았고 더우기 和는 共和政 形態의 국가로서 왕실도 없었다. 이들은 중세의 경험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구했다. 영국에서는 모험상인(Adventurer), 동인도회사, 레반트 교역회사(Levante Company) 그리고 뒤이어 무스코비會社(Muscovy Company)의 경우와 같은 制規會社(Regulated Company)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회사들로는 交易의 革新을 도모하기 힘들었다. 이들에게서는 영속성도, 자본과 재원 확보의 기대도 불가능했다. 때문에 16C 중엽에는 海外交易에서 英國이 최초로 시도한 joint-stock venturer가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인 例로는 기니아(Guinea) 회사와 1577~1580년에 드레이크의 航海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선은 주식회사의 설립이었다. 왕실이 회사에게 특허장(charters)을 부여하고 교역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개척이나 통치의 목적을 위해 설립했던 영국의 東印度會社, 허드슨회사 그리고 荷蘭의 동인도 회사가 이러한 부류의 근대적인 회사들이었다.

다섯째, 교역의 증대와 분업화의 확대로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의 사용이 보다 확산되었고 이 결과로서 은행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초기에 독일의 뮌헨, 이모프스, 호체스테터스, 그리고 휘거家は 은행가로서, 도매상으로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이들 중 휘거家는 안뚜에르피아와 이탈리아의 은행업과 상업을 석권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은행은 그 범위가 한정된 민간 은행이었기 때문에, 날로 증대되는 화폐량과 특히 信用制度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은행의 設立이 요구됐다. 이리하여 1694년에 설립된 英國銀行은 광범위한 商業 및 무역의 팽창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춘 최초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해외 팽창의 결과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사상의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즉, 國家統制主義(Statism), 콜베리즘(Colbertism), 獨의 관방학파(Kameralists) 그리고 保護貿易主義(Protectionism)나 캘비니즘(Calvinism)은 産業革命期를 향한 유럽 변화의 과정을 이끈 이데올로기들이었던 것이다.

3. 새로운 문제점

1) 포르투갈의 유대인 문제

葡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역사적 기원과 重商主義的 植民政策의 기원에 관하여 가장 예증적인 경우를 제시했다. 그들은 유럽 팽창의 개척자로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16C 중엽부터 재정적인 궁핍으로 쇠퇴하고 만다. 많은 학자들은 富의 급속한 유입과 광대한 식민지의 支配가 낭비와 사치의 무질서한 기호 외에는, 결코 경제적 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건설적이고 자주적인 變化로 이끌어 가지 못했던 점에서 쇠퇴의 이유를 찾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덧붙여 葡의 重商主義者들은 유대인의 추방에서 그 이유를 규명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진지하게 제기 된다.

人文主義者와 改革主義者들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발휘한 영향력과 특히 북유럽 국가의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었던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유대인의 정신적 기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포르투갈 東洋帝國의 쇠퇴에 猶太人의 追放이 미친 영향의 논란으로 발전된 것이다.

당대 포르투갈의 重商主義者들은 葡에서 유대인의 추방은 국가경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되며 이와 더불어 경제에 있어 중세의 사고가 잔존해 있었던 것은 진실로 국가 발전에 유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인을 추방하고 잔존한 유대인들을 強制改宗시킨 것으로 葡社會가 스콜라 철학의 관념에 충실히 복종하면서 기만된 상업, 지나친 탐욕과 富의 추구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포르투갈에게 불충분했고 후일에도 항상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떠나간 경제적 기술, 금융과 교역상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재력이었다. 아프리카와 동양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葡人들에게 갑자기 부여된 富의 根源으로부터 지속적인 이득을 창출해 낼 능력이 구비된 엘리트층이었던 유대인의 이주로 葡는 지식층의 부족을 실감했다. 스페인의 경우처럼 포르투갈의 엘리트층도 商業活動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울러 베버(Weber)나 몽테스큐(Montesquieu)가 주장한 바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상업적 윤리관의 정립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상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반발은 조앙 루씨오 드 아제베도(João Lúcio de Azevedo) 派에서 나타났다. 아제베도는 葡의 경제적 운명에 대해 “유대인의 추방이 빈곤한 국가로의 전략을 야기했고 동 마누엘의 박해행위가 국가 쇠잔의 원인이었다고 단언하기 위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⁶⁷⁾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16C 중엽부터 葡의 경제적 쇠퇴를 야기시킨 모든 요인을 유대인 추방으로 귀속시키려는 重商主義者들의 견해에 반박하면서 “아무리 애써도 포르투갈의 경제 발전에 유대인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납득하긴 힘들다. 유대인의 추방은 東洋帝國의 기원을 이룬 絶對君主의 막강한 힘과 교역을 통해 가장 풍요로움을 구가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추방되고 도망간 유대인들이 葡에서 빼내간 富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다.”⁶⁸⁾고 고집한다.

그러나 조세 칼베트 드 마갈랑이스(José Calvet de Magalhães)는 아제베도가 유대인의 추방이 마치 국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국가의 교역이 가장 풍요로운 때였다고 강조한다면 그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첫째, 유대인의 추방의 결과와 改宗者인 크리스파웅 노보스(Cristão-Novos)의 이주는 박해가 있는 후 즉각적으로 평가할 사항이 아니고 16C, 17C 그리고 18C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마누엘 시대의 富의 유입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업적 또는 경제적 번영을 의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제베도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재산을 국내에서 반출했고 발견의 과업에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여했었다는 데도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 암스테르담의 金融界에서 葡의 유대인 이주민들의 위치를 높게 평가했던 점이나 팽창

67) 다미앙 페레스(Damião Perez)의 『포르투갈의 경제조직 *Organização Económica*』에서 인용된 주장임.

68) José Calvet de Magalhães, *História do Pensamento e Económico em Portugal* (Coimbra: Universidade de Coimbra, 1967), p. 90.

69) *Ibid.*, p. 100.

과업에서 그들의 과학적 기여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反論도 수증하기가 힘든 일이다.

자이미 꼬르띠싸용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항해왕자 엔리크가 각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협조자들에 에워 싸여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 중에서도 유태인 아브라옹 크레스케스(Abraão Cresques)의 아들 하이메 데 마이오르까(Jaime de Maiorca)를 능가할 만한 人物은 없었다.……”라고 그의 주장을 일축한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의 학자들도 상당한 논란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솜바르트는 근대 초에 행해진 猶太人들의 이동은 유럽의 資本主義 발전과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힌다. 그는 유태인이 추방되고 박해받았던 이베리아 반도는 급속히 경제가 쇠퇴했고 이들을 영입한 和, 英 그리고 북유럽의 일부 지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유태인은 수세기 동안 지배적인 경제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經濟的 個人主義의 觀念을 일깨워 준 존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웨버는 猶太人이 중세의 정치 사회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傳統的 經濟觀을 파괴한 책임자로 간주될 수 없다며 솜바르트의 견해를 반박하는 한편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유태인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관점에서라면 일부 국가, 일부 지역에서 유태인이 경제발전과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 주요 요인이 됐다는 당연한 논리가 선다. 즉, 자본주의 정신이 번영의 국면에 있었던 和와 英에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이주해 온 수많은 유태인들의 경험과 상관습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위기에 적응됐고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2) 스페인의 價格革命 問題

일반적인 견해로는 新大陸에서 막대한 양의 貴金屬, 특히 銀이 유입되면서 價格革命(Price Revolution)이라 부를 만큼 物價의 騰貴現象이 유럽 사회에 나타났다고 한다. 價格革命의 문제는 이와 같이 증대된 화폐의 양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유입된 귀금속의 量으로는 유럽의 經濟의 局面을 변모시킬 수 없었고 오히려 물가는 하락세였다. 그러나 당시의 유럽은 무엇보다도 인구의 확산, 은광 개발의 발전, 교역과 금융상의 기술 향상과 통신 수단의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경제 조직의 성장으로 커다란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독일에서는 1451년에 銅에서 銀을 분리해 내는 水銀의 아말감 공법이 개발되어 귀금속 생산량이 증가했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金이 유럽

市場에 대량 유입되면서 商品價格에 비해 金의 가치가 하락했으며 일반 물가의 상승이 있었다. 여기에 대량의 銀이 끊임없이 유입되자 물가의 인상도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이다. 페이네(Payne)의 자료에 의하면 신대륙 광산이 개발되면서 1500~1600년에 유럽에서는 은의 경우 300%, 金의 경우는 20%의 유통량이 증가했다고 하며, 1530년 경부터 가치가 하락된 金과 銀은 1C~1C반 동안에 화폐 가치의 $\frac{1}{4}$ 의 하락과 一般物價의 3배 이상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귀금속과 전반적인 인구 증가는 16C의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⁷⁰⁾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 같은 경우를 충분히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다. 16C부터 논쟁의 대상이 된 物價上昇에 대한 의문은 교역의 팽창, 植民地 交易, 交易商品의 生産, 金屬貨幣 그리고 金融業 등과 관련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초로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은 1550년대에 살라망카(Salamanca) 대학의 마르틴 데 아스필꾸에타(Martín de Azpilcueta)로서 스페인에서 가격의 등귀 현상에 대해 “화폐가 풍요로운 곳보다는 결핍되었을 때와 결핍된 곳에서 값어치가 있다.”⁷¹⁾는 전제 하에 스페인보다 화폐의 양이 적은 불란서에서 빵, 포도주, 직물 그리고 勞動力은 훨씬 값이 저렴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더 적었던 시대에 훨씬 적은 돈으로 값싼 노동력과 물건을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불란서의 장 보댕(Jean Bodin)에 의해서 가격의 앙등 현상이 설명되기 12년 전에 발표된 아메리카産 貴金屬의 유입에 연관된 최초의 量의 理論이었다.

한편 1566년 불란서 王의 고문인 말레트로우(M. de Malestroict)는 金屬貨幣價格의 하락은 항속적인 평가절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문주의자 장 보댕은 “말레트로우의 패러독스에 대한 회답(Reply to the Paradoxes of M. Malestroict)”을 통해 전자의 오류를 입증하는 설명으로 金과 銀의 풍요로움이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폐 수량설의 근본 원리를 밝혀낸 최초의 학자로서 “만일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상품의 공급에 상응하는 증가를 초과해서 증가하면 물가는 자연히 앙등한다⁷²⁾”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를 반박하며 貨幣流通率의 증가는 貨幣數量的 증가처럼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70) Stanley G. Payne, *op. cit.*, p. 281.

71) J.H. Elliott, *La España Imperial, 1469~1716*, quinta edición (Barcelona: editorial Vicens-Vives, 1987), p. 204.

72) Shepard B. Clough and Richard T. Rapp, *op. cit.*, p. 143.

아메리카에서 귀금속의 流入量과 스페인의 가격을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다시 시도된 것은 20C에 들어와서였다. 193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밀톤은 스페인의 물가 동향과 은의 수입량에 관한 방대한 統計資料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에 얼마나 많은 화폐가 존재해야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귀금속의 유입 폭선에 대한 價格變動을 나타내는 곡선을 도표로 만들어 귀금속의 반입이 가속화될 때마다 物價는 상승하며 반입의 속도가 완만할 때는 물가는 안정되거나 낮아진다고 주장하며 “16C 전기간에, 특히 1535년 이후 銀의 輸入增加와 價格上昇 간의 밀접한 관계는 異論없이 아메리카의 풍요로운 귀금속이 스페인에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주장은 발표되자마자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해밀톤에 대한 반대의 견해는 다양했다. 첫째, 해밀톤은 어디까지나 스페인의 물가와 스페인의 귀금속 수입량을 가정으로 제시했지만 가격혁명은 유럽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금속 화폐에 대한 가격의 관계는 만일 이 귀금속 모두가 스페인 내에만 머문다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 귀금속은 유럽과 世界市場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곳 시장에서 物價와 맞부딪치게 된다.

둘째, 각 경제권의 반응과 특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유럽물가의 상승은 측정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가격의 상승이 경제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스페인의 경우처럼 경제를 정체시킨다.

셋째, 맑시스트 학자들의 주장은 “유럽 사회의 대부분은 16C에 商業資本의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목적은 돈이고 상품은 수단이였으며, 金과 銀의 가치는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바, 생산비의 하락은 物價上昇의 원인이 된다.”⁷³⁾며 해밀톤과는 다른 각도에서 價格革命을 평가한다.⁷⁴⁾

이와 같은 많은 견해들과 함께 해밀톤의 오류를 보강하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나달(D. Nadal)이었다. 그는 스페인의 가격 상승의 절정기는 16C 초반이지 중반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나달에 의하면 1562~1600년의 1.3%에 비해 1501~1562년의 2.8%가 물가의 연평균 증가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물가의 앙등이 가장 심했던 시기인 1521~1530년에는 급속한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났고, 다시 1561~1565년에 약간의 인상이 있었으며 16C의 마지막 30년간에는 인플레이 움직임이 완만하게 하향했다고 주장한다.⁷⁵⁾

73) Pierre Vilar, *Or et Monnaie dans L'Histoire* (Paris: ed. Flammarion, 1986), p. 94.

74) José Veiga Torres, *op. cit.*, pp. 102-104.

75) J.H. Elliott, *op. cit.*, pp. 206-207.

이로써 20C의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로 價格革命의 정확한 원인은 더욱 더 불확실하게 여겨졌다. 나달의 견해에 대해서도 만일 가장 심한 물가 앙등이 16C 초에 있었다면 은의 유입이 최대에 달했던 증반기와 연관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뻬에르 샤우누는 최근에 해밀톤의 주장을 보다 확장하려는 시도를 가졌다. 그의 연구는 스페인의 가격을 등록된 은의 수입량의 변동과 관련지우지 않고, 신세계와 세빌라 간의 大西洋交易路의 화물 운송량을 반영시켜 관련짓는 것이었다.⁷⁶⁾ 이것도 역시 아메리카 市場의 중요성과 가스티야의 생산 수준에 관한 입증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價格革命의 충분한 설명은 힘들다. 그러나 샤우누의 해석은 가스티야의 경제와 대서양 너머 식민지 경제 간의 지금까지 믿어진 것보다 훨씬 정교한 상호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토론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상에서처럼 현대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價格革命은 그 원인 분석에 있어 귀금속 유입의 외적인 면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엔리크 8세(Enrique VIII)의 영국과 프란시스코 1세(Francisco I)의 프랑스에서 가격을 상승시켰던 화폐의 평가절하는 카를로스 1세 통치하의 스페인에서는 없었지만 帝國政策을 위하여 끌어들이던 借款資金은 명백히 인플레이 현상을 초래했을 것이고 또 다른 원인은 화려한 의상, 보석 장신구, 그리고 호화로운 저택의 구입 비용으로 銀을 사용했던 스페인 귀족들의 낭비에서도 발견되며, 低開發된 경제와 침체된 공업 하에서의 수요의 급증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VI. 結 論

이상에서 필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植民帝國政策을 比較分析하였다.

본 연구가 帝國成立의 원인으로 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類似性과 相異性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한 바로는 양국의 식민 정책이 유럽인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세계를 인식하게 했고, 대륙들 간의 직접교류를 가능하게 했으며, 유럽 경제에 관한 한 이 植民主義의 반향은 東印度交易, 新大陸交易 그리고 이들의 有機的結合을 통해 世界市場을 형성함으로써 歷史家들에 의해 商業革命의 時代라 불릴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신한다. 환언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추구한 정책은 그 자체가 상업혁명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76) 샤우누는 가격 변동을 4기로 구분하여 1504~1550년은 지속적 상승기, 1550~1562/1563년은 상대적 불황기, 1562/1563~1610년은 팽창기 그리고 1610~1650년은 불황기로 평가한다.

많은 학자들은 地理上의 發見과 海外膨脹의 선구자적 입장에서 양국의 업적을 찬양한다. 그러나 發見 이후의 정복과 植民化의 과정에서 나타난 帝國政策에 대해서는 正當化할 수도 없고 가치도 없는 貿易策略 정도로 평가하려 들며, 16C 이후 유럽 경제 발전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 모두를 팽창정책의 결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의 모순성은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대서양 개척과 아프리카 서해안 교역의 전통적 경험에서 비롯된 포르투갈의 팽창 정책은 당시 이탈리아의 諸都市들의 독점물이었던 東洋產物 특히 香料의 交易을 통한 國富의 增進에 집중됐고, 葡王室과 다 가마의 궁극적인 목표는 香料과 基督教人의 발전에 있었다. 그러나 아라곤의 전통적인 地中海交易의 연장이었던 스페인의 팽창은 카톨릭왕들과 콜론(Colón) 사이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시작됐다. 즉, 콜론은 交易活動에서 그를 보호해 줄 국가와의 협력으로 동양의 富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카톨릭왕들은 그라나다 전쟁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지, 콜론의 계획이 성사되면 팽창의 경쟁에서 포르투갈을 앞서고, 동양의 富로 고갈된 國庫도 충당하며, 특히 十字軍精神으로 동양의 국가들과 협력 하에 투르크의 공격을 제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있었다. 이처럼 1492년의 콜론의 大西洋橫斷 航海나 1498년의 다 가마의 希望峯迂廻 航海는 양자 공히 동양을 目的地로 하고 있었다.

한편 印度行 航路의 發見 이후 포르투갈은 5차례의 원정대 파견으로 동양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고 아랍 商人들의 베네치아行 교역 루트를 파괴하면 東洋交易을 석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부터 원정대는 노련한 航海家 아닌 王室의 貴族들의 지휘하에 호전적 방법으로 주요 거점의 확보에 나섰다. 이른바 先支配 政策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반해 스페인은 아메리카大陸을 동양으로 향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콜론의 3차 원정으로 이 곳이 교역 보다는 영토 확장에 알맞다고 판단하고 이주민을 정착시켜 그라나다式 植民事業을 진행해 나갔다.

결국 포르투갈은 1506년 배의 갑판을 본거지로 한 海上帝國을 건설했고, 스페인은 1510년부터 征服者의 時代를 열면서 제국의 팽창에 나섰다. 이처럼 스페인이 쉽게 대륙에 안주한 것은 이미 안떠야스 제도에서 발견됐던 金 때문이었다.

한편 양국은 植民地는 絶對적으로 본국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모든 交易는 輸入보다 輸出의 초과를 달성하도록 統制되어야 하며, 國家의 富는 自國이 보유한 地金(bullion)의 量에 의해 측정된다는 初期重商主義的 規範 하에서 香料交易 獨占과 金銀交易 獨占의 정책을 수행했다. 이들의 정책은 제노바나 베네치아의 類型과는 對照를 이루지만, 葡人들의 정책은 신세계에서 카스티야의 정책에 비해 이

달리아적 요소가 강했다. 하지만 양국은 타국가들이 이제까지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했다. 葡人들은 廉價로 東洋의 香料를 구입하여 유럽市場에서 高價로 판매하는 仲介貿易을 실행했고, 西人들은 좌절된 香料의 꿈을 멕시코와 페루에서 발견한 무진장한 銀으로 메꾸어 나갔다.

분명히 양국은 獨占交易으로 엄청난 富를 蓄積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성취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정책은 16C 중반과 16C 후반을 기점으로 쇠퇴의 징후를 나타냈다. 포르투갈로서는 莫大한 이익을 제공했던 香料交易 獨占은 그들의 전통적 경제 균형에 가해진 갑작스러운 충격과였다. 國王 자신이 거대한 獨占企業의 企業家였던 포르투갈은 自由로운 商業活動을 沮害하고, 부르주아지 商人階層에 의하기보다는 強力한 艦隊를 앞세운 前近代의인 方法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限界性을 드러냈다. 1550년대 이후 새로운 포르투갈 經濟의 수도는 리스본이 아닌 안투에르피아(Antuérpia)이다. 葡王室은 이 때부터 東洋에서 유럽까지 香料의 운송을 책임지는 역할로 전락했고, 君主制資本主義(Capitalismo monarquico)도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스페인에서도 교역은 확실히 經濟發展을 促進시켰고 유럽 내에서 그들의 政治, 經濟의 比重을 높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王國은 세계에서 가장 富裕해질 수도있고 가장 貧國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처럼 국내 매뉴팩처의 영세성, 카를로스 1세(Carlos I)와 펠리페 2세(Felipe II)의 끊임없는 戰爭試圖 등으로 한계에 이른다.

비록 兩植民帝國은 몰락 내지는 쇠퇴의 樣相을 나타냈지만, 그들의 國家建設과 經濟建設의 시도는 유럽경제 발전에 매우 다양한 變化를 야기시켰다. 즉, 유럽의 經濟成長에 대한 衝動, 貴金屬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物價上昇과 그 결과로서 촉진된 產業發展과 농업상의 새로운 변화, 地中海에서 大西洋海岸으로 經濟中心圈의 이동, 企業組織의 근본적 변화로 株式會社의 등장, 貨幣使用의 확대와 銀行活動의 강화 그리고 產業革命을 향한 政治, 社會 그리고 經濟思想의 變化 등이 그 대표적인 例라 할 수 있다.

한편 兩帝國의 쇠퇴와 더불어 나타난 또 하나의 現象은 新興帝國 英, 和 그리고 佛의 급격한 부상이었다. 그들은 선두 그룹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상업질서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업의 自由活動을 허용하고 國內產業을 보호하면서 兩帝國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兩帝國政策의 전단계를 비교하여 얻어진 상관 관계의 一般化는 모든 舊帝國主義國家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實踐으로서의 重商主義政策은 체계화된 理論으로서의 重商主義政策에 선행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役割 역시도 희생적인 것이었다.

英國의 역사가 타우니(R.H. Tawney)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東洋과 西洋의 보물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人口와 1만 마일에 걸쳐 펼쳐진 요새와 在外商館의 연결선에 불과했던 帝國을 소유했던 포르투갈도, 또한 수세기 동안 광활하고 산재된 帝國을 책임지고, 비틀거리며 행진중인 軍隊나 다름없었던 스페인도 그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다.”⁷⁷⁾고 말한다.

이 표현에서처럼 그들은 주인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兩國의 役割이 後期資本主義, 産業革命 그리고 1870~1910년에 지구상의 도처에 확산됐던 新帝國主義出現의 前提가 됐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Primary Sources

Portuguese Books

Brito, Bernardo G, de, *História Trágico-Marítima*, Lisboa: Publicações Europa-América, 1978.

Campos, José Moreira, *O Infante D. Henrique e os Descobrimentos dos portugueses*, Lisboa: Edição do Autor, 1957.

Coelho, A. Borges, *Quadros para uma viagem a Portugal no séc. XVI*, Lisboa: Caminho, 1986.

_____, *Raízes da Expansão Portuguesa*, Lisboa: Prelo Ed, 1976.

Cortesão, Jaime, *A Expansão dos Portugueses na História da Civilização*, Lisboa: Livros Horizonte, 1983.

_____, *História dos Descobrimentos Portugueses* (Vol. I), Lisboa: Cículo de Leitores, 1979.

_____, *História dos Descobrimentos Portugueses* (Vol. II), Lisboa: Círculo de Leitores, 1979.

_____, *História dos Descobrimentos Portugueses* (Vol. III), Lisboa: Círculo de Leitores, 1979.

_____, *O Império Portugues no Oriente*, Lisboa: Livros Horizonte, 1983.

_____, *Teoria Geral dos Descobrimentos Portugueses*, Lisboa: Livros Horizon-

77) José Calvet de Magalhães, *op. cit.*, p.96.

- te, 1983.
- Domongues, Francisco Contente, *A Abertura do Mundo* (Vol. I),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86.
- _____, *A Abertura do mundo* (Vol. II),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87.
- Galvão, António, *Tratado dos Descobrimentos*, Porto: Livraria civilização Editora, 1563.
- Garcia, José Manuel, *Viagens dos Descobrimentos*,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88.
- Godinho, Manuel, *Relação do novo caminho que fez por Terra e Mar vindo da Índia para Portugal no Ano de 1663*, Lisboa: Imprensa Nacional, 1974.
- Godinho, Vitorino Magalhães, *Documentos sobre a expansão*,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45.
- _____, *Economia dos descobrimentos Henriquinos*,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62.
- _____, *História Económica e Social da Expansão Portuguesa*, Lisboa: Arcádia, 1947.
- _____, *Os Descobrimentos e a Economia Mundial* (Vol. I),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82.
- _____, *Os Descobrimentos e a Economia Mundial* (Vol. II), Editorial Presença, 1982.
- _____, *Os Descobrimentos e a Economia Mundial* (Vol. III), Editorial Presença, 1982.
- Góis, Damião de, *Crónica do Príncipe D. João-Documentos sobre a Expansão Portuguesa*, 1962.
- Lopez Fernão, *Crónica de D. Henrique*, Lisboa: Livraria Civilização, 1983.
- _____, *Crónica de D. João I* (Vol. I) Lisboa: Livraria Civilização, 1983.
- _____, *Crónica de D. João I* (Vol. II), Lisboa: Livraria Civilização, 1983.
- Marques, João Francisco, *A parenética Portuguesa e a Dominação Filipina*, Porto: Centro de História, 1986.
- Osório, D. Jerónimo, *Da vida e Feitos de El-Rei D. Manuel*, Lisboa: Livraria Civilização, 1980.
- Perez, Damião, *O Descobrimento do Brasil por Pedro Alvares Cabral*, Lisboa:

Bertrand, 1968.

Serrão, Joaquim Veríssimo, *História de Portugal (1415~1495)*, Lisboa: Editorial Verbo, 1980.

_____, *História de Portugal (1495~1580)*, Lisboa: Editorial Verbo, 1980.

_____, *História de Portugal (1580~1640)*, Lisboa: Editorial Verbo, 1980.

_____, *História de Portugal (1640~1750)*, Lisboa: Editorial Verbo, 1980.

Zurara, Gomes Eanes da, *Crónica de Guiné*, Lisboa: Livraria Civilização, 1982.

Spanish Books

Bernaldez, Andrés, *Crónica de los Reyes Católicos don Fernando y Doña Isabel*, Ribadaneyra: Biblioteca de Autores Españoles, 1952.

Carbia, Rómulo D., *La Crónoca oficial de las Indias Occidentales*, La Plata: Biblioteca Humanidades, 1939.

Céspedes del Castillo, Guillermo, *El Archivo*, Sevilla, 1986.

_____, *Textos y Documentos de La América Hispánica (1492~1898)* Barcelona: Labor, 1986.

Kirk, John Forter, *Philip the second*, Philadelphia: J.B. Lipincott Co., 1891.

Lacarta, Manuel, *Felipe II*, Madrid: La Biografía Histórica, 1986.

Orejón, A. Muro, *Las Leyes Neuvas*, Barcelona: Labor, 1986.

Parker, Geoffrey, *Felipe II*, Madrid: Alianza Editorial, 1978.

O estudo comparativo das políticas coloniais do Império português e espanhol

Choi, Young-Soo

O objectivo deste trabalho é, essencialmente, analisar as causas e as consequências do mercantilismo, política do Império colonial de Portugal e da Espanha.

Para este estudo, quero esclarecer a concepção e as relações mútuas do Imperialismo, Mercantilismo e Absolutismo, porque ambos os Impérios pertenceram à categoria do antigo imperialismo, e o mercantilismo foi políticas económicas e coloniais da monarquia absolutista.

A expansão portuguesa e espanhola no séc. XV-XVI foi um dos empreendimentos mais importantes na história mundial. O movimento de expansão foi produto de variadíssimas circunstâncias e factores, uns de ordem geral ou internacional, outros de ordem puramente nacional.

Dizem que a dilatação da fé e a ampliação do Reino foram causas importantes da expansão para além-mar, ou melhor dizendo, foram os princípios orientadores da acção dos portugueses e espanhóis nas conquistas e descobrimentos.

Mas, não foi, apenas, estas causas que influenciaram os portugueses e espanhóis e os levou as terras de África e depois à Ásia, à América e enfim, a todas as partes do mundo. outros estímulos de expansão foram factores políticos, económicos e sociais.

Assim, de descobrimento em descobrimento, de conquista em conquista, Portugal e Espanha tornaram-se maior, ganhando novas terras para si e novas gentes para a cristandade.

A descoberta do caminho marítimo para a Índia foi o mais extraordinário feito dos Tempos Modernos e teve múltiplas consequências.

A viagem de Vasco da Gama, reconhecendo grande parte da costa ocidental africana e abrindo ao mundo ocidental o ignoto e vasto oriente, uniu numa

larga relação os 3 grandes continentes do Velho Mundo.

Portugal operou uma grande revolução material no comércio das especiarias e dos produtos orientais, mudando o eixo da actividade comercial do Mediterrâneo para Atlântico.

Por outro lado, os espanhóis não encontraram especiarias na América espanhola, mas eles foram compensados pela grande quantidade do ouro e da prata.

Na década de 1540, a rápida ascensão da produção de prata, primeiro no México-Zacatecas e no Peru-Potosí deu a integração da América nos circuitos económicos mundiais.

Por todo um século, Portugal e a Espanha desfrutavam as riquezas do Oriente e da América espanhola pelo monopólio comercial das especiarias e das pedras preciosas.

Entretanto, no começo do séc. XVII, a Holanda, a Inglesa e França também tomaram parte no movimento expansionista. Por tal motivo, Portugal e a Espanha combateram para preservar seus domínios ultramarinos contra as transgressões de três poderes agressivos. Eles, porém, não só criaram impérios coloniais à custa de Portugal e a Espanha, mas também disputaram incessantemente entre si mesmos.

Esta intensificação da rivalidade para colónias e comércio reflectiram-se a alteração política e a cena económica na Europa.

Embora Impérios coloniais dos portugueses e os espanhóis estivessem na decadência no começo do séc. XVII, de todos os maiores acontecimentos históricos desde Idade Medieval até Tempo Moderno, nenhum foi mais significativo do que suas expansões ultramarinas e as políticas coloniais.

Com eles a Europa abriu-se.

Posso dizer conclusivamente que o papel de Portugal e da Espanha foi então de primordial importância: na extensão geográfica da economia europeia, na descoberta do acesso directo a produtos de procura fundamental noutros continentes, na criação de novos processos de relação com a produção e na organização do Estado que se adaptasse às novas necessidades.

Este papel poderia ter-lhes oferecido a hegemonia da transformação económica e social da Europa. Assim não aconteceram.

Portugal teve de servir apenas de intermediário ocasional.

Em Espanha, também, as cortes espanhola, em 1588~1593, manifestaram uma consciência diversa ao declarar que seus reinos poderiam ser os mais ricos do mundo e acabavam por ser os mais pobres, Porque serviam apenas de ponto de passagem do ouro e da prata para outros reinos inimigos. Efetivamente, a moeda ia permitir o desenvolvimento das zonas mais industriais de Itália, Inglaterra e Holanda.